

리아후나

주 섬기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20쪽

혼란한 시대를 위한 물문경의
통찰력, 30쪽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줄 건가요?
52쪽

가족 활동: 연차 대회 최종 점검, 63쪽



© ELSEPH YOUNG. 복사 금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엘스페스 영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처럼,
루디아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했다.]”(13절) 그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던 자들 중 하나였으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사도행전 16:14)
그녀와 그 식구들이 침례 받은 후, 그녀는 바울에게 자신의 집에 와 가르침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15절 참조)



리아호나, 2012년 9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모범으로 복음 나누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특별한 필요 사항을 알고 돌보며

특집 기사

- 12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법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우리의 신앙은 행동 원리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지
앞면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지, 뒷면 사진 촬영:
그랜트 와이트사이즈 및 테리 와이트사이즈
제공

- 16 모범으로 복음 나누기
스테파니 제이 번스, 다시 젠슨
개인적으로 개종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복음을 나눌 수 있다.
- 20 연로한 선교사들: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다
켄드라 크랜들 윌리엄슨
선교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하려면 신앙이 필요하나 이는 커다란 보상을 가져온다.
- 30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데이비드 브렌트 마시
몰몬경은 충실한 제자들이 혼란한 시대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 35 수확의 시기는 올 것이다
마이클 알 모리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틀림없이 온다.

교회 본부 기사

- 8 4월 연차 대회 노트
- 9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의지 사용
- 10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나의 원수를 사랑하다
익명
- 26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성전에 집중함으로써 받는 축복
조슈아 제이 퍼키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내 가치는 얼마일까?
애덤 시 울슨



42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이드리언 오초아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초등회'
참석하기

- 46 해답을 찾아서
- 48 여러분의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이 여덟 가지 원리들은 균형이 깨진 세상에서 여러분이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51 포스터: 시간을 현명하게 쓰십시오
- 5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선택의지와 책임
세인 엠 보웬 장로
- 54 모범으로 축복받다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선한 모범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57 가장 강력한 군대
에이치 다니엘 월케 카날레스
봉사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봉사해야 하는가? 군대?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
- 58 우리들 공간



- 59 읽는 법 배우기
래리 알 로렌스 장로
읽는 법을 배운 것이 복음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60 선교사 친구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복음을 나누는 것이 초등학교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만큼이나 쉬울 수 있나요?
- 62 우리들 이야기
- 63 연차 대회 최종 점검
이 활동을 이용하여 대회를 준비하세요.
-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십계명은 저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 66 안녕! 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사는 티모페이야
채드 이 패러스
티모페이는 성전 일반 공개에 친구 셋을 초대했습니다.
- 68 예수님 이야기: 니파이인을 방문하신 예수님
다이앤 엘 맹검
-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 81 물문경 경전 인물

2012년 9월호, 제49권, 제9호
리아호나 10489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잡지임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웨이, 디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사도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티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프

고문: 키이스 알 에드워즈, 크리스토퍼 콜먼 이세, 퍼지 마암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엘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애덤 시 울슨

공통 편집인: 수잔 배넷, 라이언 카

편집 스태프: 브리타니 비에티,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트, 라르네 포터 가운트, 캐리 캐스턴, 리아 맥클레넨,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토커, 조슈아 제이 피커, 채드 이 파레스, 켄 핀보로, 폴 벤덴버그, 머리사 에이 윌슨, 멜리사 켄데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칸먼

공통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성인 디자인: 시 캄볼 보트, 콜린 항글리, 에릭 피 존슨, 스코트 엠 무이

제작 스태프: 콜레트 네베커 오운, 콘니 바솔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쿠버, 지니 제이 날슨, 가일 테데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예반 말슨

통 관: 제551호, 제49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중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장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무어, 스페인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2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September 2012 Vol. 36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September 2012 Vol. 36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성인

봉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극복한 연로한 선교사들의 영감 어린 이야기를 읽는다.(20쪽 참조)

liahona.lds.org에서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는 연로한 선교사들의 사진과 간증을 더 볼 수 있다.

청소년

52쪽에는 새로 개정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에 나오는 표준에 관한 첫 번째 연재 기사가 나온다. youth.lds.org에서 모든 표준에 대한 내용을 더 찾아본다.

어린이

63쪽에 나오는 "연차 대회 최종 점검" 활동을 해 보고 lds.org/general-conference/children에서 다른 연차 대회 활동을 찾아본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26, 40, 66
- 개인적인 가치, 80
- 개종, 26, 54, 59
- 계명, 64
- 균형, 48, 51
- 기도, 48, 58
- 모범, 42, 54
- 물문경, 30, 68, 81
- 방문 교육, 4
- 봉사, 7, 20, 44
- 부활, 68
- 사랑, 10

- 사랑, 26, 30, 38
- 선교 사업, 4, 12, 16, 20, 39, 40, 41, 42, 46., 57, 60
- 선택의지, 9, 51, 52
- 성약, 12
- 성전 가문트, 47
- 성전 사업, 26
- 간증, 47
- 순종, 30, 35, 64
- 신앙, 12, 20
- 역경, 30
- 연차 대회, 8, 41, 63

- 예수 그리스도, 68
- 용서, 10
- 일, 35
- 읽고 쓰는 능력, 59
- 자립, 35
- 초등학교, 70
- 축복, 35
- 평화, 38
- 표준, 40
- 회개, 30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모범으로 복음 나누기

하 나님께서 복음을 나누려는, 준비된 종들의 길에 준비된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몰몬경을 한 권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짧은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친구는 몰몬경 대신 전도용 카드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몰몬경을 가지고 가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몰몬경 한 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정 중에 아는 여성이 옆자리에 앉자, 그는 ‘이 여성이 내가 복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돌아오는 길에도 동석을 했습니다. 친구는 ‘복음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쪽에서 먼저 “다니시는 교회에 십일조를 내시지요?”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십일조를 내야 하지만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몰몬경에 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그녀에게 몰몬경은 경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것을 번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그 말에 관심을 보이자 친구는 가방에 손을 집어 넣으며, “이 책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바로 책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자 그녀는 “이 책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여성이 교회를 찾고 있었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제 친구를 지켜보며 그 교회가 그를 그토록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를 궁금해한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녀가 몰몬경에 대해 물어볼 것이고 선교사들에게 배우려 할 것이라는 점도 아셨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역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여성은 몰몬경과 주님의 회복된 교회,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치는 계명에 대해 들었고 또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진리에 관한 첫 증거를 느낀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성신을 통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진리를 알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2 참조)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준비의 시작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거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이 충분히 부드러우면, 어렴풋이나마 진리에 대한 확신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여성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몬경을 공부한 제 후기 성도 친구 또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증거를 느꼈고, 영이 그 책을 가지고 가도록 지시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회복된 진리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받아들일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신앙을 요구하시며, 그런 후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매우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을 두려움 없이 나누는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매일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 진리로 채워 복음을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계명과 성약을 지킨다면, 영의 증거와 더불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을 향한 구주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한다면, 진리에 대해 진심으로 전하는 간증을 들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가 족과 이 말씀을 읽고, 아이어링 회장이 개인의 간증을 강화하는 방법을 언급한,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을 토론한다. 복음을 나눌 때 간증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족과 함께 토론한다. 자녀들에게는 친구들에게 간증을 전하는 방법을 역할극으로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

해야 할 말을 알다

복음 지식이 사람들과 나눌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 경전 구절의 약속에서 위안을 찾으십시오.

“이 백성에게 너희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너희 마음에 넣어줄 생각을 말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00:5~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

모두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자기 몫을 다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아이어링 회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 진리로 채워 복음을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복음 진리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아이어링 회장님은 복음을 나눌 준비를 하는 중요한 방법은 아래의 어린이들처럼 우리의 생각을 복음 진리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맨 밑줄 그림과 그 위 그림을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지 찾아보세요.



복음을 나눌 준비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신앙, 가족, 구제

특별한 필요 사항을 알고 돌보며

토 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¹

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방문하는 각 자매들을 진심으로 알고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베푸는 봉사는 자연히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발로한다.(요한복음 13:34~35 참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방문하는 자매들의 영적, 현세적 필요 사항을 파악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봉사할 수 있을까? 방문 교사인 우리는 방문하는 자매들에 대해 기도할 때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방문하는 자매들과 정기적으로 계속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문, 전화, 격려 편지, 이메일, 곁에 함께 앉아 주는 것,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 교회에서 다가가기,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 그 외 모든 봉사 행위는 모두 서로 보살피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²

방문 교사들은 방문 대상 자매들의 복지, 특별한 필요 사항, 자신이 수행한 봉사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이런 보고와 자매들에게 행하는 봉사는 우리의 제자 됨을 나타내는 한 방편이다.³



성구에서

요한복음 10:14~16; 제3니파이 17:7, 9; 모로나이서 6:3~4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야호나, 2009년 11월호, 85쪽.
 2.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9.5.1 참조.
 3. 지침서 제2권, 9.5.4 참조.
 4. 메리 엘런 스무트,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 117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82쪽.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은 언제나 방문 교육의 핵심이었다. 끊임없이 봉사하면서 우리는 매달 하는 방문을 뛰어넘어 친절과 우정을 가져오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돌봄이다.

제13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메리 엘런 스무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전화, 분기 방문, 월례 방문 중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등으로 걱정하는 대신 연약한 영혼들을 강화시키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간절하게 당부하고 싶습니다.”⁴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이 왕국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볼 회장은 모든 봉사가 영웅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의 봉사 행위는 보통 간단한 격려나 평범한 일에서 …… 도움을 주는 것들로 이루어지지만, …… 작고 사려 깊은 행동에서 나오는 결과는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습니까!”⁵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나는 돌보도록 지명받은 각 자매들의 영적, 현세적 필요 사항을 어떻게 도울지 알기 위해 개인적으로 영감을 구하는가?
2. 내가 돌보는 자매들은 내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염려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2년 4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계신 선지자들과 사도들께서 주신 최근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나의 첫 번째 교회 부름

저는 가족과 함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지부에 다녔습니다. 그 작은 지부에는 훌륭한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중 한 분은 지부 회장이셨던 랜드슐츠 형제님이었습니다. ……

어느 일요일, 랜드슐츠 회장은 제게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당시 그 집회소에는 지부 회장실이 따로 없었기에, [그분]은 저를 작은 공과반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제게 집사 정원회 회장이라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은 중요한 부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시간을 들여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장과 주님이 제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생생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성스럽고 신성한 영이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이 교회가 구주의 교회이며, 그분이 주신 부름이 성신을 통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공과방을 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제 자신이 전보다 더 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

…… 저는 큰 영예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봉사하고 싶었고 지부 회장님이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깨닫는 것은 그때 지부 회장님이 그냥 형식적으로 부름을 주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도에서 간단히 말씀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신권회에서 제가 새로운 집사 정원회 회장이라고 발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할 일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이유를 시간을 내어 알려 주셨습니다. ……

…… 그것은 바로, 저에게 영을 깨우고 행동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 신권 지도력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신권 봉사의 이유”,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58쪽.

생각해 볼 질문:

-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과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을 강화합니까?
- 바쁠 때일지라도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 경전 안내서,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scriptures.lds.org; 헨리 비 아이어링,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십시오”,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75~78쪽.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를 방문하십시오.





선택의지에 관한 경전 구절

신명기 11:26~28; 30:15~20
 여호수아 24:14~15
 니파이후서 2장
 힐라만서 14:30~31
 모로나이서 7:15~19
 교리와 성약 58:26~28;
 101:78
 모세서 4:3~4

현명한 선택의지 사용

청 소년 시절에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은 우리가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온다는 것이다.¹ 이번 호 52~53쪽을 펼치면 이 원리를 강조한 칠십인 정원회 세인 엠 보웬 장로의 말씀을 볼 수 있다.

보웬 장로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악함과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유혹을 극복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주님은 부모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라”(교리와 성약 93:40)고 명하셨다.

교회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이 표준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 제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을 가르칠 때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선택의지와 책임’ 부분을 십 대 자녀와 함께 읽는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은 그 표준에 대해 토론하고 자녀들에게 있을지 모르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 이번 호 청소년란에 실린 보웬 장로의 기사를 읽는다. 청소년인 자녀가 올바른 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올바른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이야기를 활용한다.
- youth.lds.org에 접속해서 “Youth Menu(청소년 메뉴)” 아래에 있는 “For

the Strength of Youth(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클릭한 뒤 “Agency and Accountability(선택의지와 책임)”을 클릭한다. 거기서 참조 성구, 동영상, 질의응답, 기사를 볼 수 있다.

- 용기를 내고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제로 가정의 밤이나 가족 영적 모임을 연다.²

어린이를 가르칠 때

- 이번 달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선택함에 관한 것이다.(이번 호 64~65쪽 참조) 가족이 함께 이 이야기를 읽고, 이 이야기에서 결정이 몇 번 나오는지 자녀들에게 세어 보라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한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면서 배운 몇 가지를 나눈다.
-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에 나오는 CTR 활동을 끝낸다. 그런 후 좋은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이야기한다. 의로운 결정으로 받은 축복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 선택의지와 책임에 관해 더 많은 가르침 제언을 보고 싶다면 2012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lds.org/service/serving-in-the-church/primary/sharing-time-2012)의 1월 부분을 참조한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3쪽 참조.
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60쪽 참조.



내적인 치유

“우리 대부분은 아직 [그리스도와 같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 이상의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할 때 우리는 길르앗의 유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병 고치의 은사, 즉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며, 우리가 그의 참된 종이 되려고 한다면,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입니다만,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그리스도의 병 고치는 능력”, 성도의 빛, 1989년 1월호, 59쪽.

나의 원수를 사랑하다

익명

나는 우리의 원수를 비롯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알았지만, 마주보고 있는 그 군인은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피점령국에서 성장했다. 점령군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마을 사람 중 상당수가 뚜렷한 이유 없이 군인한테 구속되거나 구타당하거나 총에 맞았고,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했다. 열여섯 살 때, 군인들이 우리 대학교에 와서 한 학생의 머리를 총으로 쏜 적이 있다. 2시간 동안 그들은 그 학생을 병원으로 후송하지도 못하게 했다. 그날 내 가슴속에서 그 군인들을 향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우리 국민에게 입힌 고통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학생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교회에 들어온 건 스물다섯 살 때였는데, 검문소, 통행금지, 기타 여행 제한 조치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웠다. 목숨을 걸고 몰래 빠져 나와야만 성찬을 취하고 후기 성도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유일한 교회 회원인 우리 가족이 마을에서 생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회 회원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거의 매주 군인들에게 막혀 돌아와야 했다.

어느 안식일, 검문소를 지나려는데 한 군인이 내게 지나갈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 군인을 보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마태복음 5:43~44 참조)라는 구주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제서야 내가 그 군인을 사랑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청소년 때 느낀 증오심은 교회에 들어온 후에는 사라졌지만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지만, 마음을 다해 점령군을 사랑할 수는 없었다. 여러 날 동안 그 문제로 괴로워했는데, 특히 성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다.

어느 날, 나는 이 구절을 읽게 되었다.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모로나이서 7:48) 마치 물몬이 내게 직접 말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 주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원수를 사랑하게 도와 달라며



어떻게 하면 남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2011) 23장에서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회장은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얻도록 도움을 준다.

- 우리가 충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 받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인내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에 대한 모든 증오를 마음에서 지워 버려야 합니다.”
-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취할 때 …… 서로에 대한, 그리고 우리와 종교를 달리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모든 불친절한 감정을 몰아냅니다.”
-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혹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의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표현할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본다.

금식하고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여러 날을 보내면서도 어떠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씩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다. 약 1년 후, 검문소를 통과하려는데 한 군인이 길을 막았다. 이번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군인의 눈을 바라봤을 때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느꼈고 나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니파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지 않고서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안다.(니파이전서 3:7 참조) 그리스도께서 적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분의 도움으로 그것이 가능함을 아셨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위대한 모범에서 배운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실 수 있다. ■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은 삶과 가르침에서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악한 자, 저속한 자,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히려 한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공홀히 여기는 자가 공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6쪽)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법

성령을 통해 받는 신앙의 은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은사를
키울 방법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에 관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엘마는 바라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참[되다]”(엘마서 32:21)고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1)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의 지위, (2) 그분의 무한한 속죄, (3) 문자 그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자 확신이며, 이 모든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은사를 제시할 때 신앙도 포함시켰습니다.(고린도전서 12:9 참조) 신앙은 참으로 영을 통해 오지만, Bible Dictionary(영어 성경 사전)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신앙은 은사이긴 하지만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 돌보고 보살피야 한다.” 성령을 통해 받는 신앙의 은사에 영향을 미치고 이 은사를 키울 방법은 많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맨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성신을 통해 그 가르침이 주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진리의 영”(교리와 성약 50:17~22 참조),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바울은 모두가 신앙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물론은 천사의 성역을 설명하면서 신앙은 언제나 복음을 들음으로써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천사]의 성역의 직무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며,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바, 그의 성약을 이루고 그 성약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택하신 그릇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라.

또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길을 예비하사, 성신이 그 권능을 좇아 그들의 마음에 있을 곳을 가지게 하시나니, 이 같은

신앙은 참으로 영을 통해 오지만, Bible Dictionary(영어 성경 사전)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신앙은 은사이긴 하지만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



방법으로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성약을 이루시느니라.”(모로나아서 7:31~32)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명 받은 선교사들은 부름 받고 성별되며 사도가 지닌 열쇠와 권세 하에 권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의 택하신 그릇”으로 인정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권세를 받은 전령인 그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가르치고 간증함으로써 그들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낳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간단히 말해서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며 우리는 잠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그분 이름으로 침례 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 왕국에 영원히 거할 자리가 있도록 속죄하심으로써 죽음과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신앙은 회개를 통해 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회개에 필요한 신앙이 싹트며, 회개는 다시 자라나는 신앙에 양분을 줍니다. 물론은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모로나아서 7:34)

예를 들어, 현명한 선교사는 동반자와 협의하고 기도하여 각 구도자가 따라야 할 회개 과정에 대해 영감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가르칠 내용을 계획합니다. 구도자와 만날 때마다 어떤 권유를 해야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권유에 맞춰 토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결정하며, 구도자가 선교사의 권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교리를 이해해야 하는지를 파악합니다.

선교사들은 그 구도자가 어떻게 하면 가장 명확하고 확신 있게 그런 교리들을 배울 수 있을지 결정할 것입니다. 구도자가 지키기 어려워하는 원리나 계명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회원의 도움을 비롯해,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할 길과 방법을 계획할 것입니다. 그런 선교사의 가르침과 간증이 바로 구도자가 회개 과정을 밟도록 도울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앙은 성약을 통해 옵니다

회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침수로써의 침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전 구절은 “회개의 침례”, 즉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언급합니다.(사도행전 19:4; 엘마서 5:62; 7:14; 모로나아서 8:11; 교리와 성약 35:5~6 참조) 그런 구절들은 물의 침례가 회개 과정에서 마지막 혹은 절정의 단계라는 교리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죄를 버리는 과정과 더불어 순종하겠다는

성약으로 완전해집니다. 참으로 이 성약이 없다면 회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영의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써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니파이후서 31:17 참조) 더욱이, 침례 성약은 과거부터 미래에까지 적용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마다 그 성약은 새롭게 되며 우리는 다시금 죄 사함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 이와 연관된 성약들은 신앙을 키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신성한 성약을 맺기 위한 필수 요건이지만, 성약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약을 통해, 우리 각자에 대해 그분의 말씀을 지키실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2:10 참조) 우리가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키는 한, 그분은 그분 왕국에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 줄 의무를 지게 되시며, 더 높은 성약을 지킬 경우 그 왕국에서 승영하도록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무한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도 극복할 만큼 강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국에는 확실히 구원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법에 관해 선교사들을 예로 들어 말씀드린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살아 있거나 이미 돌아가신, 하나님의 명을 받은 그분 중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영으로 나게 됩니다. 그 기초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매일 삶의 일부이자 때로는 매시간 삶의 일부이기도 한,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으로써 강해집니다.

물론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흡족히 취할 때 그 말씀에 기반을 둔 신앙은 점점 커지고 깊어집니다. 완벽하게 순종할 때 신앙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신앙에 더 많은 양분을 줍니다. 회개는 우리가 받은 물의 침례와 영의 침례에 힘을 실어 주어 침례 전뿐 아니라 후에 지은 죄까지도 사함 받게 해 줍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성약 지키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약속된 축복이 실제로 삶에 임하며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고 강화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은 또한 권능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영적인 확신이 들게 하고 선행, 무엇보다도 복음 원리와 계명에 순종하는 선행을 낳는 수준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앙이자 우리가 구도자를 가르칠 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우리 행동을 좌우할 뿐 아니라 현 상태를 바꾸고 다른 방법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으킬 힘을 부여하는 수준의 신앙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의 원리로서뿐만 아니라 권능의 원리인 신앙입니다. 바울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신앙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떨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히브리서 11:33~35)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위대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처럼 끊기 힘든 중독이나 그에 견줄 만한 개종과, 침례를 가로막는 요소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통해 권능을 받게 되는 열쇠는 배우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모로나아서 7:33)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경고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아무 것이라도 너희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구하면, 그것은 돌이켜져 너희의 정죄가 되리라.”(교리와 성약 88:65)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은 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 할 때 놀라우리만큼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는 행동의 원리인 신앙은 또한 권능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

2011년 6월 23일, 유타 주 프로보에서 열린 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모범으로 복음 나누기

복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대로 사는 것이다.

스테파니 제이 번스, 다시 젠슨

우 리 중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일이 쉽지가 않다. 사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면서도 막상 친구, 가족, 이웃에게 복음 이야기를 하려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더욱이 종종 '선교 사업' 하면 으레 개개인을 돕는 것보다 그 방법이나 활동, 결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문제는, 사람을 간과한 모든 노력은 역지스럽거나 진실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바로 각자 더욱더 복음으로 개종하고 삶에 묻어나는 모범과 친절함 대화로 물꼬를 트는 것이다. 우리가 더욱 개종하고 우리 종교에 친숙해질수록, 다른 사람 역시 복음이 주는 축복을 누렸으면 하는 우리의 소망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복음을 나누는 일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복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 충실한 제자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동, 말, 용모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주님의 빛이 발할 수 있습니다.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¹



복음대로 살기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구주는 그 길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우리에게 그분처럼 되라고 명하신다.(제3니파이 27:27 참조)”² 회원들이 그리스도께 배우고 그분의 속죄 권능을 통해 그분의 속성을 삶에 적용하려 노력할 때,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능력이 커진다.³

미국 워싱턴 주에서 최근에 개종한 한 회원은 오로지 회원들과 함께 보낸 시간 덕에 복음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행복과 함께하며 느낀 것들은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제게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본연의 모습인 생활 방식, 그들이 내리는 선택, 행동, 대처 방식에 복음이 깃들어 있었죠. 그들을 보면서 저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어. 내 삶도 저랬으면 좋겠어.'

복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더 친숙해질 때 그 영향력에 관해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말할 거리가 있고 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 출신인 미리암 크리스쿠올로는 이웃과 소중한 우정을 쌓고서도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야 할지 몰랐다. "함께 보낸 시간이 꽤 길었음에도 그 친구에게 복음에 대해 말할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것이 제 의무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복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미리암은 이렇게 회상한다. "제 딸이 초등학교 활동을 보여 주자 친구가 호기심을 느꼈어요. '초등학교가 뭐니?' 하고 물었죠. 그 질문에 이어 수많은 질문이 잇달아 나왔죠. 저는 수년간 친구가 뭔가를 찾아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그 친구가 찾던 내면의 평화를 우리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나중에 교회에 들어왔죠. 친구는 어떻게 하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선교 사업의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좀 더 이야기하십시오

“여러 해 전만 해도 저희 가족은 거의 항상 우리와 종교가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일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주말을 잘 보냈느냐는 인사에 대답할 때 …… 주말에 있었던 종교적인 경험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 청소년 연사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지, 선교 사업을 떠나는 청년의 말씀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를] …… 이야기했습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76쪽.

먼저 친구 되기

미리암처럼,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야 할 의무감을 느끼는데 그 의무감이 억지스럽고 불편한 대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더욱이 책임감은 우리를 버겁게 하며 복음 원리를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게 한다.

성공적인 선교 사업 기회는 회원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진실하고 좋은 친구가 될 때 더 잘 찾아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밝힐 경우 …… 친구와 친지들은 이것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⁴

복음을 나누는 데 우정을 활용하는 대신, 기존의 우정 관계에 복음을 포함시킬 때 선교 사업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아르헨티나 교회 회원인 엘리아나 베르게스 데 레다는 여섯 살 때 동갑내기 친구 아나벨을 만났다.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둘의 우정은 깊어졌다. 그러는 동안 엘리아나는 자신이 교회 회원임을 숨기지 않았다.

엘리아나는 “같은 종교는 아니었지만 아나벨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굉장히 편했어요.”라고 말한다.

열네 살이 되었을 때 아나벨은 선교사 토론을 듣기로 했으나 침례는 받지 않기로 했다.

엘리아나는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우정도, 복음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몇 년 뒤 엘리아나는 아나벨에게 함께 세미나리에 참석하자고 권했다. 수업 시간 동안 아나벨은 영을 매우 강하게 느꼈다. 며칠 뒤 성전에 가려고 준비하던 엘리아나에게 아나벨이 말했다. “다음 번에 너랑 같이 가겠다고 약속할게.” 아나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 받았다.

아나벨의 개종은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수년이 걸렸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나벨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든 없었던 간에 엘리아나가 먼저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랑으로 듣기

엘리아나와 아나벨과 같은 우정은 종종 둘 사이에 비슷한 관심사, 표준, 공통점이 있을 때 시작된다. 이러한 우정은 친구와 서로 자신의 경험, 감정, 사랑을 나눌 때 깊어진다. 물론 사랑은 회복된 복음의 핵심이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활동, 봉사, 대화 등으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런 친구를 찾는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면서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은 이렇게 권고하셨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침례 숫자로만 나타나는 무생물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이며,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진실하게 다가가십시오. 그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 무엇인지 물어십시오. 그 후엔 들으십시오. ……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는 복음 진리를 강조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간증할 수 있고 더 알려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반드시 있습니다.”⁵

친구들에게 복음 메시지로 공세를 펼칠 필요는 없다. 그냥 좋은 친구가 되고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워 말고 복음 개념을 나누면 된다.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해 회원들이 간증을 나누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 이 강력한 감정은 방해가 될 수 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손수레를 끌고 …… 평원을 횡단하는 것이 친구들 앞에서 신앙이나 종교를 주제로 말하는 것보다 쉬울지 모릅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걱정하거나 관계가 멀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려는 것은 기쁨을 가져올 소식이기 때문입니다.”⁶

선지자 몰몬은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음이라.”(모로나이서 8:16)라고 가르쳤다. 더 충실히 복음대로 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친구, 가족, 이웃을 향한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바꿈으로써 그것을 몰아낼 수 있다. 이 사랑은 복음을 나누려는 우리의 천성을 강화할 것이다.⁷

자연스럽게 복음 나누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이 주는 관점이

필요하다. 복음의 모형을 따르는 회원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증거이다.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의미 있는 우정을 쌓으며 자애를 키우는 일에 매진할 때, 복음을 나누는 것은 그들의 본성으로 자리 잡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누려고 노력할 때, 회원들은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에서 위안과 인도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 ■

주

1. 러셀 엠 넬슨,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48쪽.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15쪽.
3.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15쪽 참조.
4. 엠 러셀 벨라드, “복음을 나누는 가정을 만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6쪽.
5. 제프리 알 홀런드, “증인이 되어”,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16쪽.
6. 다이어트 에프 우흐트도르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앉아 기다리며”,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76쪽.
7. 바바라 톰슨, “벌어진 간격을 조심하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20쪽 참조.



텔레비전과 옥외 광고판에서도 펼쳐졌다. Mormon.org에서 후기 성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몰몬은 기독교입니까?”, “성경에 대해 몰몬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등과 같은 수많은 질문에 답한다.

미국 텍사스 주 출신인 로셀 탈매지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나누었다. “복음을 나눌 경험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이 새로운 Mormon.org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 아들들에게 장애가 있기에 제가 이 사이트에서 받는 답신 대부분은

본인이나 자기 가족 중 누군가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죠. 가장 흥미로운 경험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살며 휠체어에 의존하는 미아와 관련한 것이었어요. 그녀는 Mormon.org에서 장애에 대한 뭔가를 찾다가 우리 동영상상을 보게 되었고 큰 감동을 받았죠. 그녀는 선교사들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여름 내내 편지를 교환했어요. 그녀는 8월 중순에 침례받았답니다. 우리는 주님이 바다를 가로질러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몰몬입니다”의 힘

20 10년에 발족된 “저는 몰몬입니다” 캠페인은 교회 회원들이 쉽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통로가 되었다. 이 캠페인은 온라인에서만 아니라 미국 내 여러 도시의

선지자의 부름에

전 세계의 연로한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에 방해되는 요소를 극복하면서 받은 큰 보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켄드라 크렌들 윌리엄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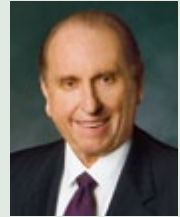
미 국 캘리포니아 주에 살던 쉐타 루안그래스와 사운더라 루안그래스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네 자녀를 선교사로 보냈으니 이제는 자신들의 차례임을 알았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손자 손녀들이 몹시 보고 싶을 것이었다! 몇 가지 건강 문제도 염려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없는 사이 집과 소유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루안그래스 부부가 선교 사업을 놓고 고민하는 걱정거리는 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십이사도 정원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연로한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올바른 선교 사업 기회 찾기, 재정 문제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묶어 말씀하기도 했다.¹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큰 신앙이

응하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 집을 떠나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주님의 사업에 전념하여 봉사할 때 얻게 되는 감미로운 영광과 만족감을 누릴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다시 함께 만나서”,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6쪽.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이주한 천타 루안그래스와 사운더라 루안그래스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라오스를 가리키고 있다.

필요하다. 루안그래스 부부는 2010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을 때 그러한 신앙을 행사했다. 그들은 이렇게 회고한다. “영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서 선교사 지원서를 냈어요.”

루안그래스 부부는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을 했던 라오스에서 인도주의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봉사할 준비를 하자 걱정거리는

상단 왼쪽: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봉사하는 연로한 선교사들은 여러 국가에서 온 난민들이 새로운 터전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르완다에서 온 윌타브와바 가족은 최근에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TOP: PHOTOGRAPH BY ROBERT CASEY



산트라 존스 자매는 마셜 제도 여성들을 위해 봉사했다. (왼쪽: 남편 넬턴과 함께)

사라졌다. 가족이 지지해 주었고 건강 문제도 해결했으며 집은 세를 놓았다. 그들은 “와서 나를 따르라”(마가복음 10:21)는 구주의 명을 따르며 확신을 느꼈다.

연로한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채로운 방법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임이든 시간제든, 부부 선교사든 홀로 봉사하든, 자국에서 하든

마사 마린 자매(맨 오른쪽)는 멕시코 푸에블라에 있는 취업 자원 센터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타국에서 봉사하든, 연로한 성인들은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움에 맞서기

“미지에 대한 두려움, 경전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두려움, 요구되는 언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봉사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 선교사로 나가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²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두려움으로 선교 사업을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봉사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걱정한다. 타국에서 살거나 모르는 사람과 일하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멕시코 베라크루스에 사는 마사 마린 자매는 멕시코 푸에블라에 있는 취업 자원 센터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몇 가지 두려움에 직면했다. 취업 센터에서는 컴퓨터 사용이 중요한데, 그녀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반자와 동료들이 돕고 지원해 주어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마린 자매는 “이 장애물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라고 말한다.

미국 유타 주에 사는 산트라 존스 자매는 남편 넬턴과 함께 마셜 제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녀는 “제가 하게 될 일을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늘 편치 않았거든요.”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지만 자신의 재능과 기술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녀는 마셜 제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머리카락을 잘라 주고 바느질을 가르치면서 봉사했다.

18개월간 그녀는 700차례에 걸쳐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다. 재능을 기꺼이 나누면서, 교회 회원과 구도자, 지역 사회의 다른 구성원을 포함한 수백 명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과의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가족에 대한 걱정 해결하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후손에게 ‘우리 집안은 선교 사업을 한다.’라고 말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³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어려움을 겪는 자녀나 커 가는 손자 손녀를 두고 멀리 떠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인 듯하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그들의 봉사 덕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

미국 와이오밍 주에 사는 레이먼드 피터슨과 그웬 피터슨은 네 차례나 선교 사업을 했다. 두 번째로 선교 사업을 하려고 다시 사모아로 떠나갈 때, 자녀들은 힘들어했다. 부모님이 왜 또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족은 피터슨 부부의 봉사로 어떤 큰 축복이 임했는지를 곧 깨닫게 되었다. 피터슨 자매는 “가족이 모두 변창했어요! 자녀가 없던 집은 아들을 낳았고, 기적처럼 암에서 치유된 사람도 있죠. 어려움을 겪던 한 아이는 크게 발전했고, 그 해 사업이 변창한 집도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근면은 가족 전체에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다. 피터슨 자매는 말한다. “현재 네 손자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교 사업을 하도록 영감을 준 게 우리라고 하더군요.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바른 선교 사업 기회 찾기

“저는 각 선교사와 부부 선교사의 특성과 필요



레이먼드 피터슨과 그웬 피터슨은 사모아 후기 성도들 사이에서 선교 사업을 두 번 했다.

사항이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는 선교 사업의 매우 다양한 상황에 맞도록 성신이 어떻게 돕는지 보며 번번이 놀라곤 합니다.”⁴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연로한 선교사의 봉사가 필요한 곳에는 취업 센터, 선교 본부, 가족 역사 센터, 성전, 방문자 센터 등이 있다. 지원자는 어디서 봉사하고 싶은지 요청할 수 있으나 결국 부름은 주님의

조지 헤이스와 하인 헤이스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인도주의 사업 책임자로 봉사했다.



연로한 선교사 정책 변경 사항

- 부부 선교사는 봉사 기간을 6, 12, 18, 23개월 중에 선택할 수 있다.
- 연로한 선교사들의 주거 비용은 매달 미화 1,4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
- 연로한 선교사들은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을 시 자비로 집에 다녀올 수 있다.(최장 10일까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http://lds.org/church/news/changes-in-senior-missionary-rules>에 접속한다.

선지자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온다. 주님은 기꺼이 봉사하려는 자매나 부부에게 적합한 선교 사업 기회가 무엇인지를 아신다.

뉴질랜드에 사는 조지 체이스와 하인 체이스는 그들에게 딱 맞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부부는 직업적 재능과 가족으로서 지닌 재능의 상당 부분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하는 인도주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며 놀라면서도 기뻐다.

전직 목수인 체이스 장로는 우물 공사 등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조직할 때 기여할 수 있었다. 체이스 자매는 사무 관리직에서 18년간 일했다. 체이스 자매는 “저의 행정 능력과 컴퓨터 기술은 아주 유용했어요.”라고 말한다. 이 부부는 힘을 합쳐 진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지역 주민에게 시간 관리, 조직화, 지도력, 위생 관리, 대화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도왔다.

체이스 부부는 교회 부름을 수행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쌓은 경험을 활용했다. 체이스 부부는 학용품을 나눠 주고

신생아 관리를 개선하고자 봉사하면서 부모로서 해 온 경험을 떠올리며 그 지역 가족과 학교가 당면한 어려움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었다.

재정 문제 해결하기

“여러분의 확대 가족과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상의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황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⁵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많은 부부가 선교 사업을 하기에 돈이 충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 고민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정책을 변경해 부담을 덜어 주었다.(좌측 난 참조) 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신앙, 자세한 계획,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

짐바브웨에 있는 레너드 치생고와 베라 치생고는 효과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결혼생활 내내 선교 사업을 준비했고, 연금과 투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한 첫 번째 선교 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봉사하는 동안 갑자기 큰 경기 침체가 와서 막대한 투자 손실이 생겼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족들의 도움으로 치생고 부부는 선교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 그 희생으로 받은 축복은 놀라웠다. 아들의 사업은 번창했고 딸은 승진했으며 손자 손녀들은 부모를 돕기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웠다.

연로한 많은 선교사들은 봉사로 받는 축복에 비하면 현세적인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간증한다. 홍콩 지역 사무실에서 아내 켈리와 봉사하는 캐나다인 선교사 피터 새클리 장로는 많은 연로한 선교사들의 마음을 “봉급을 받는 직장에서 축복을 받는 직장으로 이직한 셈이죠.”라고 표현한다.

피터 새클리와 켈리 새클리는 홍콩 지역 사무실에서 봉사했다.



신앙을 강화하여 장애물 극복하기

“겸손한 많은 후기 성도들이 선교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로 봉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신앙, 소망, 자애와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자격이 있게 하느니라.’”⁶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연로한 선교사로 봉사하는 길에 있는 네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헤일즈 장로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고, 가족을 강화하며, 연로한 선교사가 올바른 봉사 기회를 찾고, 재정적으로 위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오래 전에 어린 폴란드 소녀였던 스테니슬라와 하벨은 그런 신앙을 키웠다. 훗날 그녀는 회복된 복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였고 성인이 되어서는 유타 주에서 가족 역사 선교사로 봉사했다.

하벨 자매는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선교 사업은 젊음을 유지하게 해 준답니다.”라고 말한다. “자신이 처한 시련을 잇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법을 배우는데, 그건 곧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준비를 하는 거죠. 선교 사업은 나이든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참으로, 선교 사업은 연로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겸손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

연로한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고 있다. liahona.lds.org에 접속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더 읽어 본다.



레너드 치성고와 베라 치성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봉사했다. (오른쪽)



주

1. 로버트 디 헤일즈, “부부 선교사: 봉사할 시간”,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28~31쪽 참조.
2. 로버트 디 헤일즈,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29쪽.
3. 제프리 알 홀런드, “싸움 끝나는 날까지”, 리야호나, 2011년 11월호, 45쪽.
4. 리차드 지 스코트, “지금 이 선교사로 봉사할 때입니다!” 리야호나, 2006년 5월호, 89쪽.
5. 로버트 디 헤일즈, “부부 선교사: 희생과 봉사로부터 오는 축복”, 리야호나, 2005년 5월호, 40쪽.
6. 러셀 엠 넬슨, “부부 선교사 그리고 복음”, 리야호나, 2004년 11월호, 81쪽.
7. 로버트 디 헤일즈,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31쪽.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레너드 치성고 장로, 짐바브웨

스테니슬라와 하벨은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족 역사 도서관에서 이동자들을 돕는다.



성전에 집중함으로써 받는 축복



“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앨마서 40:11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그 일은 주님의 집에서 성취된다.

조슈아 제이 퍼키
교회 잡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리차드 로드리게스 감독과 그의 아내 루스 로드리게스는 삶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보는 눈과 듣는 귀, 그리고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통해 시련을 신앙으로 맞섰고, 그럼으로써 구주와 행복, 평화에 더 가까워졌다.

상실감 극복

리차드와 루스는 에콰도르 쿠엥카에서 멀리 않은 안데스 산맥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 아소게스의 한 시멘트 제조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만났다. 리차드는 개종자였으며 몇 해 전에 어머니와 형제와 함께 교회에 들어온 터였다. 당시 루스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리차드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루스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그들은 1996년에 결혼했다. 몇 달 후에 루스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루스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심각한 우울증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은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언제나 상실감을 느끼죠.”

2001년에는 리차드의 모친이 별세했다. 또다시 큰 슬픔이 찾아왔다. 하지만 리차드는 여러 해 동안 복음 지식과 간증을 키워 왔기에 위안이 되는 통찰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복음 덕분에 저는 어머니가 어떤 상태에 계신지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앨마서 40장 11절을 루스와 나누었고 영이 몸을 떠날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구절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택의지를 귀중히 여기다

루스는 교회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친절했으나 교회에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종교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리차드는 그 문제로 루스를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화가 안 좋게 끝났어요. 아내에게 압력을 줄 때면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2001년 가을에 선교사들은 루스를 침례식에 초대했다. 루스가 초대를 받아들이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침례식 때 침례 받을 자매는 간증을 나누었다. 루스는 “그 자매님은 교회를 알게 된 후 건강, 복지, 힘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자매님은 홀로 생활했음에도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라고 회상한다.

루스는 그토록 힘든 시련들 속에서도 어떻게 그 같은 신앙이 생겼는지가 궁금했다. 그러한 의문을 품고서 침례식 자리에 함께한 루스는 감명을 받고 영으로부터 증거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때 침례 받기로 결심했어요. 나중에 리차드와 저만 있게 되었을 때 ‘여보, 12월에 침례받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물었죠.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전 이미 교회와 복음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선교사 토론은 해야 했지만요.”

리차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라고 덧붙였다. “어떤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루스는 준비가 된 후에야 침례 받게 되었죠.”

루스도 동의한다. “결혼 당시에는 제가 극복할 문제가 산더미 같았어요. 마침내 그것을 극복해내자 삶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가 바로 침례 받을 준비가 된 때였죠.”

신앙으로 시련에 맞서다

2001년 12월에 있었던 루스의 침례는 가족의 중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같은 변화로 온 영적인 힘과 축복은 지금까지 이 가족을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위: 자녀들과 함께한 리차드 로드리게스와 루스 로드리게스(왼쪽부터): 마리아 주디스, 호르헤, 리차드 2세, 프레디. 이들은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에서 인봉되었다.(오른쪽)

인도하고 있다.

“2003년 6월 28일에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되었어요.” 리차드는 말한다. “성전 인봉으로 삶에 많은 축복이 왔어요. 첫째와 둘째가 우리에게 인봉되었고 나머지 두 아이는 성약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축복입니다.”

리차드는 교회에서 충실히 봉사하자 가정 생활이 조화로워졌다고 설명했다. “아내와 저는 함께 명예를 땀니다. 시련과 고난이 왔지만 단합해서 이겨냈죠. 우리는 같은 것을 믿으며, 성전에서 인봉되었기에 충실히 견디면 주님이 도우실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성전에 집중하여 와드가 바뀌다

루스가 침례받을 때, 아소게스 지부 회원 수는 고작 25명뿐이었다. 와드로 승격된 지금은 종종 75명 이상까지도 성찬식에 참석한다.

“가족을 강화할 때 개인이 강화됩니다.” 루스는 말한다. “회원들이 계명을 지키고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귀 기울일 때 가족과 와드가 강화됩니다. 각 가족은 와드가 성장할 수 있게 떠받치는 시멘트의 일부와 같습니다.”

감독으로서 리차드는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며 자주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가족을 강화하는 노력을 증진시켰다. 그런 노력 중 하나로, 다섯 시간을 들여 에과도르 과야킬 성전으로 향해 가는 와드 성전 방문을 들 수 있다.

“가능한 한 자주 와드 회원들이 함께 성전에 갑니다.” 루스는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성전에서 모든 가족이 인봉되는 것입니다.”

“인봉 받으러 성전에 가는 것은 가족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리차드가 말한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가족이 인봉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가족철을 준비해 조상을 위한 의식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굳게 지키기로 결심했고 더 큰 행복을 찾았죠. 성전은 회원들의 비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전에 집중하여 개개인이 변화하다

성스럽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로드리게스 가족은 성전 성약과 조상을 위한 대리 의식에 관한 강하고 개인적인 간증을 얻었다.

“우리는 제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고모와 삼촌들을 위해 의식을 행했어요.” 루스는 말한다. “가족을 위한 의식은 직접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저는 우리가 하는 대리 의식이 참됨을 알아요. 우리가 조상을 위해 한 일들에 대해 큰 평화를

느껴요. 이 일은 정말 특별합니다.”

리차드는 이렇게 간증한다. “저는 의식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다.”

성전에 가자 가족들도 변화했다. 루스는 “성전에서 인봉되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영적인 힘이 커졌어요.”라고 말한다.

리차드도 동의한다. “우리 가족에게 성전 인봉은 더 큰 가족의 유대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족 유대가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 전진할 힘을 얻습니다. 살면서 시련은 언제나 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받는 것에 집중하면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축복을 나누고 특히 다른 가족이 이렇게 하도록 도울 때 우리 삶에 큰 기쁨이 깃듭니다. 저는 가정에 더 큰 힘을 쏟아야겠다고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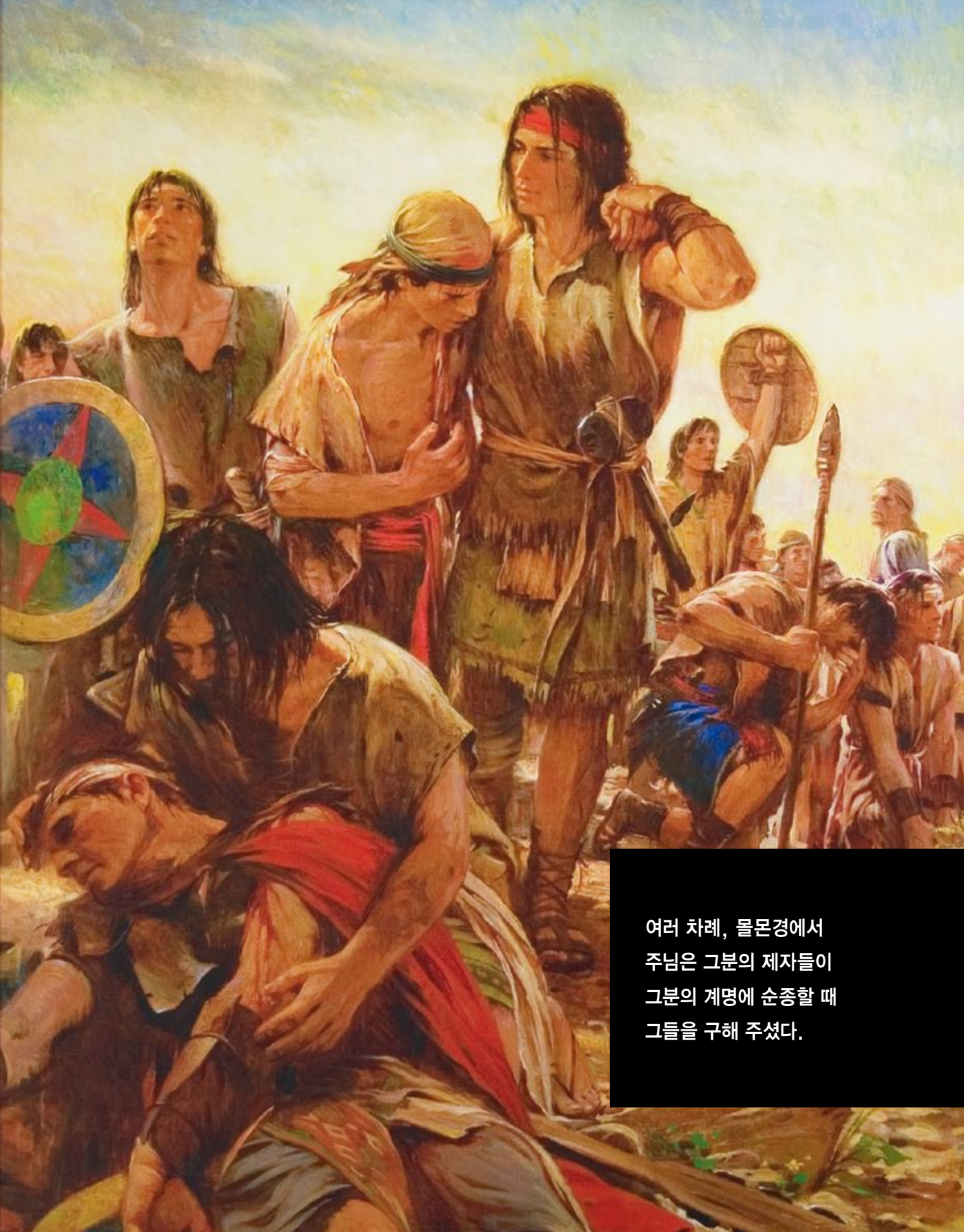
리차드는 성전에 가려고 준비하고 의식을 받고 인봉되며, 돌아가신 조상을 위한 대리 의식을 하겠다고 결심한 가족들의 결정이 바로 그들이 받은 정말 큰 축복 중 하나라고 느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며 특히 성전에 가서 신권을 통해 인봉과 구원 의식을 받을 때 삶이 바뀝니다. 성전 성약을 맺는 사람은 더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



주체로서 행동하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크게 나누면 ‘행하는 것들과 행함을 받는 것들’(니파이후서 2:14)로 분류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 즉 독립적으로 행동할 역량과 권능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선택의지가 있는 우리는 행동의 주체입니다. 행함을 받기만 하지 않고 스스로 행해야 하며 특히 능동적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8:118)”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깨어 항상 힘쓰며”,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42쪽.



여러 차례, 물몬경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들을 구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고 충실하며 순종하고 귀 기울인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President Gordon B. Hinckley(1910-2008), “God Will Protect Us in These Perilous Times”, Church News, Feb. 22, 2003, 3.

입었으나”(엘마서 50:22)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벨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원리를 재차 단언하셨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가 속박과 불행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⁵

물론정은 또한 심지어 의로운 사람 몇 명이 전 도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힐라맨서 13:12~14 참조)

전쟁은 회개하라는 외침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다. 처음에는 개인에게 영감을 주거나 선지자를 보내는 자비로운 방법을 쓰신다. 그럼에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분은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게 하려는 마지막 노력으로 전쟁과 폭력을 허용하신다.⁶

물론은 이렇게 말했다. “이러므로 주께서 많은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그가 사망과 공포와, 기근과 온갖 역병으로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그를 기억하지 아니할 줄 우리가 알게 되리라.”(힐라맨서 12:3) 전쟁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일깨워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 고통을 덜어 주신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전쟁으로 고통받아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신다. 엘마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속박되었을 때 곧 주님께 향했고(모사이야서 23:27~28 참조) 그분은 즉각 답하셨다.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야서 24:14)

야곱은 마음이 청결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



아비아다이(상단과 하단 그림)와 같은 일부 제자들은 사악한 이들을 치는 증거로서 고통을 겪거나 목숨을 바치도록 부름 받았다.



말했다.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 너희의 사정을 변호하시, 너희의 멸망을 피하는 자들 위에 공의를 내려보내실 것이라”(야곱서 3:1)

현대의 선지자들은 이 진리를 확언한다. 십이사도 정원회 조셉 비 위스린(1917~2008)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일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간섭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분께서는 충실한 이들에게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⁷

벤슨 회장님은 말씀하셨다. “시대가 위협하다 할지라도 ……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만 지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⁸

어떤 이들은 사악함을 치는 증거가 되도록 부름 받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전쟁에서 구출될 수 있지만 일부는 사악한 이들을 치는 증거로서 고통을 겪거나 목숨을 바치도록 부름 받기도 한다. 이것은 쉽게 받아들여거나 이해하기 힘든 가혹한 현실이다.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이렇게 일깨워 주셨다. “충실한 회원들도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완전히 모면할 길은 없습니다.”⁹ 헝클리 회장님은 우리 중 일부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¹⁰라고 말씀하셨다.

몰몬경에는 무자비한 학대와 잔악함이 자행된 몇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왜 선지자와 무고한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님의 제자들이 때때로 전쟁에서 고통을 겪고 목숨을 잃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아 왕의 사악한 제사들은 선지자 아빈아다이를 결박하고 “참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나뭇단으로 그의 살갓을 매질하였다.”¹¹ 죽기 전에 아빈아다이는 이렇게 간증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가 무죄한 피를 흘림이 되리니, 이 또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치는 증거가

되리다.”(모사이야서 17:10, 13)

몰몬경에는 잔인한 살인 사건도 나오는데, 바로 암몬아이하의 사악한 율법사들과 판사들이 개종한 사람들의 아내와 어린이들을 불태운 사건이 그것이다. 엘마와 엠올레크는 순교 현장으로 끌려와 이 무자비한 학살을 강제로 지켜보게 되었다.

“엠올레크가 불 가운데서 타고 있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의 고통을 보고, 그도 또한 고통을 받아, 엘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으리이까? 그런즉 우리의 손을 뻗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여, 화염에서 저들을 구원하시이다 하였더라.”

엘마는 이렇게 답했다. “영이 나를 억제하시 내가 손을 뻗치면 안 된다 하시나니, 이는 보라 주께서 저들을 영광 중에 자기에게로 영접하심이라. 또 주께서 그들로 이 일을 행하도록 버려 두시는 것, 곧 백성들로 그 마음의 완악함을 좇아, 저들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버려 두시는 것은, 그가 그 진노 중에 그들에게 베푸실 심판이 의로운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무죄한 자들의 피가 그들을 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대하여 힘차게 외치리라.”(엘마서 14:10~11)

전쟁 중 사망하는 의로운 사람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충실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퍼할 때, 몰몬경에서 우리는 그들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며 행복하다는 확신을 얻는다. 모로나이는 그 부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이는 주께서 그의 공의와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의인들의 죽임 당함을 용납하심이라. 그러므로 의인들이 죽임 당하였으므로 인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생각하지 말지니, 보라,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니라.”(엘마서 60:13)



이더(상단)와 모로나이(34쪽)는 전쟁 때문에 그들의 문명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다.(이더서 13:13~14; 모로나이서 1:1~4 참조)

원문 속단: 고통을 인내하는 아빈아다이를 보필드 크로포버, 복사 금사: 원문 속단: 아빈아다이가 증거하였나니, 윌리 레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오른쪽: 이더의 예언은 불리웠도다, 윌리 레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왜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는가?

몰 문경은 불의함이 전쟁을 불러온다고 분명하게 증거한다.

불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권력을 구할 때, 또는 사람들이 불의함이 팽배하도록 방관할 때, 그 결과로 전쟁과 분쟁, 폭력이 일어난다.

불의한 사람이 권력을 추구할 때

애들리싸이는 논쟁을 일으켰으나 적법한 투표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어찌됐건 자신을 왕으로 만들라고 설득했다. 그런 후 새로운 추종자들에게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백성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라고 명했다. 사람을 지배하는 권력에 눈먼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이 불필요한 폭력에 시달렸다.(엘마서 2장 참조)

레이만인 지휘관 제레렘나는 백성을 선동하여 니파이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속박하려 했다. 전쟁이 발발했고 전사자가 너무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엘마서 43:6~8, 37; 44:21 참조)

니파이인 이반자였던 아멜리카이아는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기만, 폭력, 전쟁을 이용했다. 니파이인들은 속박당했고, 그 후 5년 동안 전쟁과 폭력에 시달렸다.(엘마서 46~48장 참조)

사람들이 불의함이 팽배하는 것을 방관할 때

니파이는 여러 무리의 백성이 “대대로 …… 그들의 죄악에 따라 멸망당하였[다]”(니파이후서 25:9)고 가르쳤다. 모로나이 대장은 백성에게 범법하여 멸망을 자초하기 전에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엘마서 46:18 참조) 몰몬은 이렇게 말했다. “[니파이 백성]들의 전쟁과 그들의 멸망을 그들에게 초래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분쟁이요, 참으로 그들의 살인함과 그들의 약탈함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가증한 일이었음이니라.”(엘마서 50:21)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 몇 명을 비롯한 “수천의 육신이 지면 위에서 무더기를 이[룬]” 전쟁이 끝난 후 몰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친족들을 잃음으로 인하여 진실로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대로, 일으킴을 받아, 결코 끝나지 않는 행복의 상태로 하나님 우편에 거하게 된다는 소망 중에, 또 이를 알기까지 하여,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다.”(엘마서 28:11~12)

평강의 왕자

몰몬경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세상에 나왔다. 몰몬경에 기록된 사건과 가르침은 희망을 밝히고 위안을 주며 신성한 관점을 준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외침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제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신다는 것을 배운다. 또한 전쟁 혹은 폭력의 시기에 목숨을 바치도록 요구되는 의로운 이들은 사악한 사람들을 치는 증거가 될 것이며, 이 제자들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임을 배운다.

궁극적으로,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서, 가정과 국가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몰몬경은 평강의 왕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6쪽.
2. 고든 비 힝클리, “때가 찬 시대를 살아가며”,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6쪽.
3. 에즈라 테프트 벤슨, “몰몬경—우리 종교의 종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6쪽.
4. 몰몬경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백성을 전쟁과 기타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 내셨는지를 적어도 56개의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러셀 엠 넬슨, “신앙으로 미래를 맞이합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34~35쪽.
6. 몰몬경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전쟁과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도록 하시기를 11개 구절을 포함해 적어도 35개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조셉 비 워스런, “안전한 항구를 찾음”,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71쪽.
8. Ezra Taft Benson, *Conference Report*, Oct. 1950, 146.
9. 닐 에이 맥스웰, “사랑의 팔에 안겨”,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17쪽.
10. 고든 비 힝클리, “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6쪽.



수확의 시기는 올 것이다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오스카 필리포니 가족에게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일이 쉬웠던 적은 없다. 바람, 가뭄, 장비 고장, 불황, 그 외 시련들은 때때로 필리포니 가족이 온 힘을 다해 기울이는 노력을 망치는 듯 보인다.

오스카는 남부 아르헨티나 추부트 주에 있는 로워추부트리버밸리에 40헥타르에 달하는 농장이 있다. 그는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려면 우리는 매일 이곳 chacra(차크라-그들의 소유지)에서 영감과 계시를 구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어려움은 매일 닥치니까요.”

필리포니 가족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끊임없는 노력이 언제 결실을 맺을지 항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면과 끈기는 결국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배웠다.

오스카는 이렇게 설명한다. “땅을 경작한 대가는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나오지 않습니다. 꼭 금전적인 보상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매주, 매달 일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때때로 일한 대가를 얻을 때까지 여러 달, 심지어 1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나중에 수확으로

필리포니 가족은 영적, 물질적 수확의 법칙에는 끈기, 인내,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기독교 사진 촬영: 마이클 알 모리스; 지도: © ISTOCKPHOTO.COM



오스카 필리포니의 가족은 끊임없는 노력이 언제 결실을 맺을지 늘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근면과 끈기는 결국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을 배웠다.

이어지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 릴리아나, 두 자녀인 다니엘과 마리아 셀레스테와 함께 오스카는 자주개자리(사료용으로 재배하는 작물의 일종-웁긴이)와 가축을 기른다.

오스카는 이렇게 말한다. “때때로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다 농장 운영비로 들어가니까요. 기계가 고장 나기도 하고 팔려고 한 가축을 못 팔 때도 있죠. 하지만 명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인내하며 희망을 붙든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책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Che(체),¹ 팔려는 가축 좀 있나?’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전진합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매일 열심히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기준점

농사일을 하다 보면 매일 복음의 관점에서 축복과 시련을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긴다고 다니엘은 말한다. 그는 그 일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주님과 대화하고 소음이나 음악 혹은 광고 때문에 주의가 흐트러지는 일 없이 영의 영향력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자연에 둘러싸인 이런 곳에서는 교회 회원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릴리아나가 덧붙인다. “이곳은 우리가 주께 의존하는 존재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분 덕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의 모든 것은 몇 가지 복음 원리를 반영합니다. 남편은 늘 농사일이나 가축을 돌보면서 깨달은 것을 갖고 집에 옵니다.”

예를 들어 밭이랑을 만들 때, 오스카는 이랑을 곧게 만들려고 멀리 있는 나무나 바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릴리아나는 “이랑을 만드는 길에 방해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라고 말한다. “남편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죠. 곧은 이랑을



주님이 결산하실 때

“옛날에 밭이 맞닿아 있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일요일에 절대 일하지 않았는데

다른 농부는 그것으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곡식은 내 것에 비해 비실거리는구먼. 일요일에도 일하는 게 어때?’

다른 농부가 말했습니다. ‘글쎄,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하고 싶네.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거든.’

그러던 10월의 어느 날, 두 농부는 울타리에 섰습니다. 이웃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것 보게. 내 밭을 보란 말일세. 멋지지 않은가? 곡식은 무럭무럭 자랐고 밀알이 실하게 여물었네. 자네 밭은 무관심했다는 증거가 보이는데. 자네는 나만큼 밭을 돌보지 않았어. 자네에 비해 내가 추수할 곡식을 보게나. 이제 자네가 얻으리라 생각한 축복에 대해 뭐라고 할 텐가?’

[안식일을 지킨] 농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님은 10월에 결산하지 않으신다네.’라고 답했습니다.”

President Boyd K. Packer, Presiden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Mine Errand from the Lord*(2008), 193.

만들려 하나까요.”

오스카가 이렇게 덧붙인다. “이랑이 어떻게 되어 가는 지 뒤를 돌아보면 경로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기준점에 집중한 채로 전진합니다.”

그는 교회에서 지내는 것도 *chacra*(차크라)에서 지내는 일과 같다고 말한다. “살면서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경전을 읽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 주의가 흐트러지게 내버려 둔다면 기준점을 잃고 구부러진 길을 걷게 됩니다.”

영적인 수확

필리포니 가족은 근처 가이만에 있는 지부에 참석한다. 육천 명이 사는 이 마을에 1870년대에 웨일스 이주자들이 정착했는데, 지부 회원들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기회가 아주 많다. 릴리아나는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해요. 사람들이 늘 지켜보니까요.”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은 더딜 수 있다. 물질적인 수확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수확의 법칙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계속 복음 원리대로 살려고 한 필리포니 가족 덕에 사람들은 후기 성도의 표준을 알고 존중하게 되었다.

과거에 정부에서 일했을 때 오스카는 계속 커피, 차, 술 대접을 거절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몇 년이 지나자 동료들은 그 점을 배려하고 지지해 주었으며 ‘어떤 청량음료를 마실래요?’ 하고 묻더군요. 때때로 교회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확이죠.”

복음 원리를 배우고 그대로 살면서 거두는 영적인 수확이 특히 풍성했던 곳은 바로 가정이었다.

오스카가 아르헨티나 트렐레우 북스테이크의 축복사로 봉사하고, 릴리아나가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며, 가족들이 수년간 여러 부름에서 봉사하면서 받은 축복을 통해 그들은 수확을 거두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십일조의 법대로 살면서 그들은 수확을 거두었다. 오스카는 “하늘 문은 정말 열립니다. 하늘 문이 즉시 열리지 않는다면 계속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정말 열립니다.”라고 말한다.

필리포니 부부의 모든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그리고



네 아들이 모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그들은 수확을 거두었다. 교육을 받고 선교사로 봉사했기에 그들은 취직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기회를 받았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마리아 셀레스테의 형제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것과, 그녀의 종교적 믿음과, 왜 그녀가 토요일 저녁 늦게 시작하는 파티에 가지 않는지에 관해 동료들이 질문한 것에서 그들은 수확을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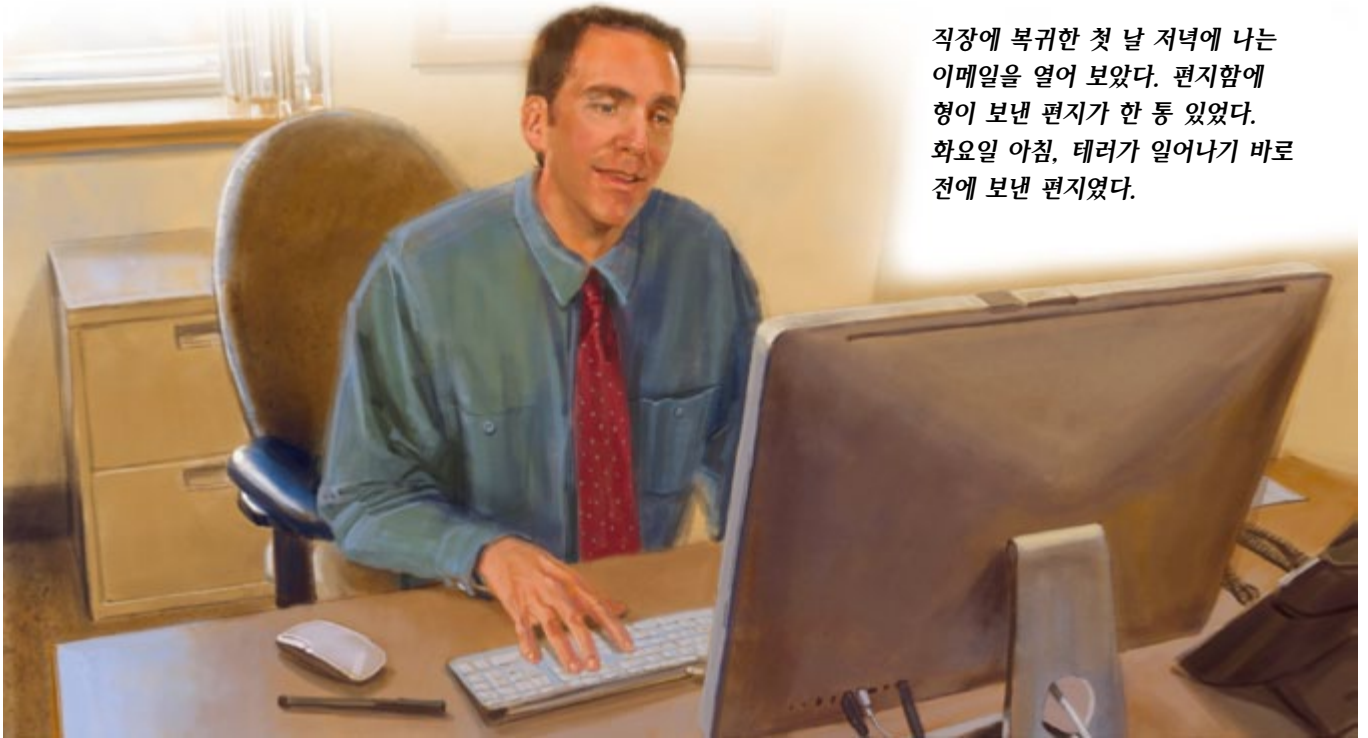
그리고 그들은 성신의 속삭임과, 침착하게 해 주는 영향력을 통해 수확을 거두었다. 성신은 어느 늦은 밤 필리포니 가족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비극을 피하도록 도와주었다. 다니엘은 어떤 소리에 깡고 짐을 지킬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침입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차가 고장 나서 도움을 청하러 온 이웃이었다.

다니엘은 말한다. “저는 영이 저를 진정시켜서 지나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황을 수습하도록 도와주었음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드렸죠.”

필리포니 가족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 사항을 돌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든 도구가 된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는 끈기, 인내, 기도가 필요하다. 큰 신앙과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맞춰 수확의 시기는 올 것이다. ■

주

1. 아르헨티나에서 흔히 쓰는 말로 ‘친구’를 의미한다.



직장에 복귀한 첫 날 저녁에 나는 이메일을 열어 보았다. 편지함에 형이 보낸 편지가 한 통 있었다. 화요일 아침, 테러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보낸 편지였다.

그분은 내게 평화를 주셨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나의 형 브레이디는 미국 펜타곤의 해군 정보국에서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PMI는 공공정책 분야에 우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인턴십 공무원 제도-웁긴이)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때 미국 아이다호 주에서 일하던 나는 테러가 일어났다는 그날 아침 뉴스를 보자마자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결근할 것이라고 알렸다.

가족 몇 명이 정부 관리들이 기차 회견실로 지정한 워싱턴에 있는 한 호텔 연회장에 모였고 거기서 관리들은 생존자 수색 상황을 알려 주었다. 우리는 희생자 명단에 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며칠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그곳에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과 절망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단합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테러가 발생한 지 거의 일주일이지난

9월 17일, 우리는 형의 사망 확인 소식을 들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의문이 든 적이 있었는데는 모르겠지만 분명 ‘왜 형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생각한 적은 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형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형처럼 되고 싶어했다. 또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생각했다. 몇 주에 걸쳐 형은 아이다호에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형은 9월 13일 목요일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겨우 이틀을 남겨 두고 죽은 것이었다.

아이다호로 돌아와서 직장에 복귀한 첫 날 저녁, 나는 9월 10일 이후로 확인하지 않은 회사 이메일을 열어 보았다. 편지함에 형이 보낸 편지가 한 통 있었다. 화요일 아침, 테러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서 형은 우리의 만남과 우리가 계획한, 모든 신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맺음말에 형은 간단히 “평화가 깃들길”이라고

적었다.

평소에 형이 쓰는 맺음말은 아니었지만 나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형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 무슨 일이 생길지 형이 알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내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평화가 깃들길이어서 좋다.

10년 이상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이메일을 다시 읽어 본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주께서 약속하신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떠올린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물론 나는 아직도 형이 그립다. 하지만 복음 덕에 이 시련을 겪었어도 신앙은 잃지 않았다. 구주의 도움으로 나는 희망과 평화 속에서 전진할 수 있었다. ■

카슨 하월, 미국 유타

몰몬에게 물어봐

핀란드에서 18세 이상인 모든 젊은 남성은 1년간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군 복무를 시작하면서 나는 여러 동료들의 의견과 태도가 내가 가진 원리와 상충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경전을 읽고 적어도 하루에 두 번 기도하면서 영과 좀 더 가까이 생활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긴장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 안심했다. 얼마 후, 내무반 동료들이 나더러 뭘 읽느냐고 물었고, 나는 “몰몬경”이라고 답했다. 물론 이어진 질문은 내가 후기 성도냐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답하자 한동안 그들은 이 일에 관해 묻지 않았다.

때때로 동료 몇 명이 몰몬경의 기원, 내용 등을 묻기 시작했다. 이후 그들은 인생의 목적에서 교회의 원리까지 물어왔다.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내 종교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고 어떤 상황에서건 언급되었다.

옆 병영의 한 동료가 내 몰몬경을 좀 읽어 볼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물론 그러라고 했다. 같은 방 친구 하나는 친구 장례식을 다녀온 뒤 그 장례식에서 인생과 인생의 목적에 관해 많은 의문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 친구는 그런 것들에 관한 교회의 믿음을 물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 속죄, 창조와 기타 복음 주제로 오랜 시간 토론했다. 그 후로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친구들도 교회의 가르침과 표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함께한 나머지 시간 동안 많은 토론을 했는데 토론은 언제나 교회의

가르침으로 귀결되는 것 같았다. 방 친구들은 이 토론을 ‘몰몬에게 물어봐’ 토론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훈련을 마친 후에 방 친구 하나는 욕설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군 복무 동안 나는 내가 교회 회원임을 알리고 충실하게 복음 가르침을 따를수록 사람들이 내게 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나눌 기회가 많아짐을 알게 되었다.

군 복무를 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기회와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한다.

우리의 가치를 담대하게 수호할 때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축복받는다라는 것을 간증한다. 삶에서 복음의 빛을 마음껏 발산한다면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카리 코포넨, 핀란드 우시마



옆 병영의 한 동료가 내 몰몬경을 좀 읽어 볼 수 있냐고 물었고, 나는 물론 그러라고 했다.



발표할 때, 영이 나를 평화와 권능으로 채우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그분 자녀들이 지닌 신성한 성품을 증거했다.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고리와 성약 123:17)

발표할 때, 영이 나를 평화와 권능으로 채우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그분 자녀들이 지닌 신성한 성품, 놀라운 잠재력, 영원한 가치를 증거했다. 하나님의 계명은 가장 큰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보여 주기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가르쳤다.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누군가의 행동으로 야기되는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수 있음을 선언했다.

내게 할당된 30분은 금세 흘렀다. 연단에서 천천히 물러나 발표 자료를 챙기면서 고개를 들었다. 성스러운 고요함이 방 전체를 채웠다. 어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있었다. 반대 의견을 고수하던 교사들은 내 용기와 확신에 감사를 표했다. 한 동료는 내가 말할 때 “특별한 영”으로 감동받았다고 했다. 다른 이들은 그러한 믿음을 그토록 섬세하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 들었으며 내 말을 듣고서 교과 과정을 바꿀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마가복음 4:39)라고 명하시어 거센 폭풍우를 잠재우신 주님이 이번에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경험으로 나는 우리가 진리를 수호할 때 절대 혼자야 아님을 알게 되었다. 다음과 같이 약속처럼 주님의 도움은 언제나 곁에 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쪽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그분이 내 폭풍우를 잠재워 주실까?

미 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5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나는 다양성을 주제로 학교 교과 과정을 의논하기 위해 관리자들과 모임을 했는데, 이 교과 과정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원리와 상반된 내용이였다. 결혼과 가족에 관한 진리를 수호하고 객관성, 존중, 이해를 증진하려 노력하다가 나는 오히려 극심한 오해와 조롱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

때때로 내가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 광풍에 요동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사도들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처럼 내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마가복음 4:38)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예수님이

참으로 거센 바람과 파도를 오래 전에 꾸짖으셨음을 믿었지만, 시련이 심해지자 그분이 내 폭풍우를 잠재워 주실 것인지 믿기가 어려워졌다.

하루는 한 학교 관리자가 다양성 훈련에서 전 교사와 직원들에게 내가 우려하는 점을 설명해 달라고 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개인 기도, 경전 공부, 성전 참석에 훨씬 진지하게 임했고, 해야 할 말을 알도록 영이 인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동료들에게 발표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었다.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내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간증한다. 내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 폭풍우를 잠재워 주셨다. ■

닉 젠타일, 미국 유타

대회에서 답을 찾다

2006년에 나는 가톨릭 대학에서 인류학 수업을 들었다. 교수님은 특정 종교를 연구하여 발표하라는 과제를 주셨다. 결국 나는 21년간 속해 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 드물고도 놀라운 기회를 통해 내 친구들을 포함한 40명의 학생들에게 내 믿음을 나눌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2개월간 발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교리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할 간단한 방법을 찾느라 고심했다. 어떤 점을 어떤 식으로 강조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었다. 발표 1주일 전까지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는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

응답은 그 주 주말에 열린 연차 대회를 통해 왔다. 200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1920~2007) 회장님은 “만유의 회복”이란 말씀을 하셨다. 나는 파우스트 회장님이 나누신 진리와 그분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발표 때 내가 따라야 할 방법이라며 성신이 확증하는 것을 느꼈다.

대회가 끝나자 나는 인터넷에서 말씀을 내려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다음 주에 쓸 슬라이드 쇼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내게 할당된 시간은 20분이었으나 교수님과 학생들이 묻는 수많은 질문 때문에 내 발표는 전체 수업 시간인 40분 동안 이어졌다.

발표를 마치자 교수님은 그 어떤 수강생도 나만큼 훌륭하게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교수님은 높은 학점을 주셨고 만점을 줄 수 없는 유일한 이유는 주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나중에 나는 교수님이 파우스트

교수님과 학생들이 묻는 수많은 질문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내 발표는 40분 동안 이어졌다.



회장님의 말씀과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리아호나 웹사이트를 알려 드렸다. 또한 교수님께 물문경 한 권을 드리며 읽어 보시고 나중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내 발표가 몇몇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을 알고 감사했다. 그 후 나머지 학기 동안 나는 내 발표 덕분에 그들의 삶이 달라진 증거들을 보았다. 한 명은 선교사들을 집으로 들이기도 했는데, 그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계속 대화할 수 있게 훌륭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학우들에게 내 믿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현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가슴에서 우리나라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배운 것에 감사드린다. ■

사라 마그누센 포테스, 브라질 상파울루

주

1. 제임스 이 파우스트, “만유의 회복”,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61~62, 67~68쪽 참조.



에이드리언 오초아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귀한 선교사들은 종종 선교 사업이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날들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또다른 영혼이 구주께 나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 때문일 것입니다.(고리와 성약 18:15 참조) 어쩌면 구도자, 개종자, 회원, 동반자, 선교부 회장과 느끼는 유대감과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도 부분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들이 느낀 구주의 빛, 즉 봉사와 간증이라는 형태로 그들이 나누는 빛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밝히신 것을 압니다.(요한복음 9:5; 12:46 참조) 하지만 그분은 산상수훈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16)

우리의 빛을 나누는 것 즉, 구주의 빛을 비추는(제3니파이 18:24 참조) 것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자 젊을 때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선교사 부름과 평생 선교 사업에 동참할 때, 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사업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는 엘마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구주입니다. 이 세 분은 제가 구주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엘마: 겸손해지십시오

엘마의 가르침은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가려고 마음먹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여덟 살에 침례를 받았지만, 저는 청소년기에는 거의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니다. 청년 성인이 되어 선교사들을 우연히 만나고 교회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서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는 것과, 겸손해질 것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엘마의 토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엘마서 32:13~15 참조) 저는 제 단점들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느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선교 사업을 하려면 커다란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해 제 사업도 운영하고 있었고 (현재는 제 아내가 된) 여자 친구와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정말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겸손해진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엘마의 다음 약속이 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같은 자는 복이 있으리니 ……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리라.”(엘마서 32:15)

스물여섯 살이 넘었지만 저는 감독님을 찾아갔고, 그분은 제가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했고, 여러 달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제가



선교 사업에
동참할 때, 우리는
구주와 엘마, 조셉
스미스의 모범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던 공보 분야에서 봉사해도 좋다는 부름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훈련을 받고 교회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직후, 미디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가 공보 전문가들을 훈련하도록 도왔고, 정부 관리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저는 이 봉사 기회를 통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기회는 제 삶의 여러 부분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교 사업은 여생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님은 미래의 선교사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한, 그 사용한 시간들은 여러분의 생애의 어떤 다른 2년보다 더 큰 투자 수익을 안겨 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충실하고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은 더욱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더욱 훌륭한 학생이 될 것이며, 더욱 훌륭한 직업인이 될 것입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나이를 넘기지 않았다면, 지금 봉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봉사할 많은 기회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전도하는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문제로 전도하는 선교 사업을 할 수 없는 청년 성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교회 봉사 선교사로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 조직에서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합니다.

전 세계 가족 역사 센터, 감독의 창고, 통조림 공장, 취업 센터, 지역 사회 봉사 조직, 미디어 및 그 밖의 다양한 교회 조직에는 교회 봉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로 나갈

연령이지만 전도하는 선교 사업을 할 수 없는 젊은이들은 부모와 지도자들과 상의하여 봉사 선교 사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능력에 따라 봉사 선교 사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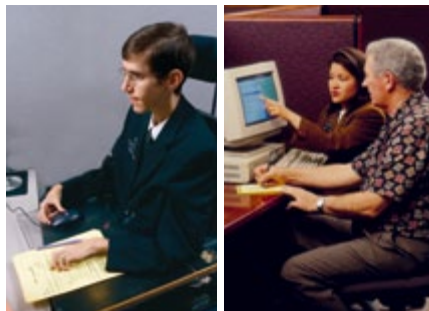


임무와 기간은 다르지만,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일, 봉사,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 봉사 선교 사업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lds.org/service/missionary-service에 접속한다.

축복은 여러분이 치를 어떤 희생보다도 훨씬 클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고려하는 동안 시련이 닥칠 수 있음을 압니다. 대적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며 주님의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습니다. 선교 사업을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보십시오. 그분은 저에게 그분의 뜻을 밝히셨으며, 저는



그분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임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 영원한 관점을 가지십시오

저는 영원한 관점에 초점을 맞출 때 주님의 종으로서의 능력이 배가될 수 있음을 조셉 스미스에게서 배웠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그 모든 것, 특히 시련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셉이 휘장 건너편을 보았기에 이 필멸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여정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이해한 것을 제가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자 우리가 현재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이해력에 한계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관점을 견지할 때 우리는 서로를 돕고, 다른 사람을 구조하며, 우리가 아는 진리를 간증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조셉 스미스처럼 영원한 관점으로 사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매일 살면서 얼마나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나누려 하겠습니까? 우리의 빛을 나누는 일, 즉 구주의 빛을 비추는 일을 공식적인 선교사 부름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포용력을 지닐 때,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눌 수 있으며,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과, 무엇을 믿는지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접할 때 다른 종교를 믿는 이웃, 학교 친구, 동료들을 알아가기를 권고합니다.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블로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등 온라인 상으로 복음을 나누라는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의 권고를 따르십시오.²

공식적인 토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의로운 모범과 삶의 방식, 간증을 나누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영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마태복음 5:16)

것입니다.

**구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서 모범이 되시는 구주께서는 세계 저 자신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구원에 더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온 삶을 바치셨습니다. 때때로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합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종 수입이나 교육, 인간 관계를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좋고 중요한 것이지만, 나중에 추구해도 되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니다.]”(마태복음 8:20) 그분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세상의 빛을 따르며 비추려 할 때, 세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개개인 역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빛을 숨기지 말고 삶을 통해 말하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고든 비 헝클리, “선교 사업과 성전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52쪽.
2. 엠 러셀 벨라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음을 나눔”, *리야호나*, 2008년 6월호, 교회 소식, 2쪽 참조.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다

연 차 대회 개최 모임이 선지자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할 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선교 사업에 대해 생각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2011년 4월, 그분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와 선교부 수를 보고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사업은 이 왕국의 생명선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에도 현금할 것을 고려해 보시도록 제안합니다.”¹

2010년 10월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내용이 되새겨 드리겠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청남 여러분, 선교 사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을 대표하기 위해 깨끗하고 순결하며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십시오.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가능한 곳에서는 세미나리 또는 종교 교육원에 참여하십시오. 선교사 지침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익히십시오.

청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청남들처럼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신권 책임은 없지만 여러분도 선교사로서 귀중한 공헌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를 환영합니다.”²

그리고 2009년 10월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³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다시 대회를 맞이하여”, *리야호나*, 2011년 5월호, 6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다시 함께 만나서”,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5~6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리야호나*, 2009년 11월호, 6쪽.

해답을 찾아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기독교 국가에
선교사들을**

보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 리 교회 회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은 '선교 사업'을 먼
곳에 가서 비기독교인에게 기독교에
대해 가르치거나, 인도주의적 구호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떠나면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이웃에게 '선교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 이유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선교사가 나누는 메시지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보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침례와 같은
의식을 할 때 필요한 신권 권세도
포함합니다. 오직 이 교회에만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독교 전통이 자리 잡은 곳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에 우리는 선교사를
모든 사람에게 보냅니다. ■



영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마 음을 열고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은 타인의 신앙과 간증을 키우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 응답받은 일화를 나누라는 느낌을 받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도 응답될 수 있다는 신앙을 키울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거나 극히 개인적인 영적 경험은 성신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이상 나누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강렬하고 감동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그리 자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교회와 교육과 교정을 위한 것입니다. ……”

또한 저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조심해서 간직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도록 영이 직접 우리에게 그 경험을 사용하라고 권고하실 때에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

저는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¹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주님의 등불”, 성도의 빛, 1983년 10월호, 31~32쪽.

때때로 사람들은 무례한 말을 하며

성전 가먼트에

관해 묻습니다. 저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먼 저, 성전 가먼트에 관해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먼트에 대해 좀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달라고 친절히 부탁하는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가먼트를 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많은 종교 신자들과 성직자들이 자신의 믿음이나 공식적인 책임을 나타내려 특정한 옷을 입는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교에서 특별한 옷을 입는 것은 그다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성전 가먼트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가먼트가 성전에서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을 행할 때 교회의 성인 회원들이 받는, 단순하고 단정한 속옷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가먼트는 개인적이고 영적인 그 다짐을 늘 기억하게 해 주는 물건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먼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혹과 악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여러분의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다음 여덟 가지 제안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도전들 중압감 없이 마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 상에서 겪는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에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균형과 조화는 깨질 수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사람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지만 가끔은 중압감과 패배감을 느낍니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요구 사항을 균형 있게 처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개념을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생활에 적용하려면 강한 결심과 자기 수련이 필요합니다.

1.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인생에 관해 생각해 보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찾아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곳에 도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도 종종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누가복음 5:16)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때때로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성취하고 싶은 일들을 매일 적어 보십시오. 일일 계획표를 작성할 때 주님과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제일 먼저 명심하십시오.

2.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달성 가능한 단기 목표를 정하십시오. 균형이 잘 잡힌 목표를 정하십시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 되며,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목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적고 중요도에 따라 실행하십시오.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십시오.

3. 현명하게 예산을 세우십시오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재정적인 시련을 겪습니다. 현명하게 예산을 세움으로써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고, 살면서 원하게 되는 많은 것을 주의 깊게 판단해 보십시오. 선지자 야곱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 수고를 들이지 말라.”(니파이후서 9:51)

언제나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4.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부모와 친척,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화하여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십시오.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사려 깊은 대화를 통해 훌륭한 가족 관계가 유지됩니다. 때로는 한 번 바라봐 주거나 앙크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살이 맞는 것만으로도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유머 감각과 경청도 훌륭한 대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5.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경전을 탐구하십시오. 경전은 주님의 영과 계속 교류하게 하는 매우 훌륭한 원천입니다. 경전 공부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지식을 얻은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과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물문경을 공부하는 것이 매일의 습관이자 평생 추구하는 일이 되게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충고는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한 권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6. 자신을 돌보십시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충분히 휴식하고 운동하며 오락을 즐길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즐기려면, 매일 계획을 짤 때 그런 활동을 할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잘 가꾼 외모는 위엄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7. 복음대로 생활하십시오

선지자들은 가족이 서로 복음을 가르쳐야 하며, 가능하면 매주 가정의 밤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가르쳤습니다.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습관은 서서히 사라지고 맙니다.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는]”(교리와 성약 88:77). 이 특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족을 영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간증을 파괴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에서 가르치는 계명대로 생활한다면, 사탄은 우리의 저항력을 뛰어넘어 유혹하거나 방해할 만한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8. 자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제안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자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때, 우리는 매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가 되며”(엘마서 13:28) 저는 제가 영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삶의 모든 일이 더 쉽게 균형을 찾는 것을 느낍니다.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외에 다른 제안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기본 목표에 집중한다면 더 훌륭하게 인생에서 겪는 많은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균형이 깨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중요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해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베냐민 왕이 권고했습니다.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모사이야서 4:27).

종종 명확한 방향과 목표가 없을 때 시간과 정력이 낭비되고 삶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균형 잃은 삶은 마치 비틀거리는 자동차 바퀴와 같습니다. 바퀴가 균형을 잃으면 자동차는 거칠고 불안정하게 달립니다. 반대로 바퀴가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자동차는 순조롭고 편안하게 달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세에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한층 더 순조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불멸과 영생”(모세서 1:39)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표라면,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생각과 감정과 정력만 요구하고 소모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제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가끔은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요.” 제가 딸에게 한 대답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본적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인 이해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목적과 의미로 가득 차고 더 쉽게 균형을 유지할 것입니다. ■

1987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몇 가지 기본 목표에
집중한다면 더 훌륭하게
인생에서 겪는 많은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현명하게 쓰십시오

“여러분의 자유의사로
수많은 선한 일들을 하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3쪽)



선택의지와 책임



세인 엠 보웬 장로
철십인 정원회

손 자에게 인생을 가르치는 한 늙은
체로키 인디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두 마리 늑대가 벌이는 무시무시한 싸움이지.
한 마리는 사악해. 분노, 시기, 슬픔, 후회, 욕심,
거만, 자기 연민, 죄책감, 분개, 열등감, 거짓말,
그릇된 자존심, 우월감, 이기심만 가득하지.

다른 한 마리는 선하단다.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고요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관대, 진실,
동정, 믿음이 가득하지. 똑같은 싸움이 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도 일어난단다.”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할아버지께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늙은 체로키 인디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지.”

선택의지와 전세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 있었을 때, 천국 회의(혹은
대 평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그분이 누리신 기쁨과 행복을
우리도 누리기를 바라셨기에 그분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지상에
와서 육체를 받고 인생의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터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 그분과 같이
되는 편을 선택하거나
계명을 어겨 그분이
약속하시는 기쁨과 축복을 거부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계획에서 핵심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은사는 선택의지라 부르며,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선택의지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하는 선택에 관해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이 계획을
실행하겠는지 물으셨을 때 루시퍼는 자신이 세운
조건 하에 온 인류를 구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은 선택의지를 부인하고 자신이 모든
영광을 차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말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획에서 구주가
되겠다고 자청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가 아버지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데 필수임을 알고는 우리의
말형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루시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슬러]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ی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
주기를 구한 까닭에 나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그가 쫓겨 나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3~4)

선택의지는 영원한 원리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원리를 범하지 않으셨기에 그분은
사탄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녀 중 1/3을
잃으셨습니다.

선택의지와 현세

그렇다면 지상에서 보내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충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아브라함서
3:24~25 참조)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할]”(니파이후서 2:26)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는 계명, 받는 의식, 지키는
성약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왕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현명한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설명했듯이
모든 것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사자는 선택의지가 있으며,
그만이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는
선택에 따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
청소년입니다. 여러분은 충만한 복음이 이곳에
있을 때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았기에, 원한다면 항상 성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침례 성약을 맺었습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신권 성약도 맺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깨끗하고 합당하게
유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고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가게 해 주는 의식을
받음으로써 영생을 선택할, 선택의지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이란 축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

앞으로 발행될 리아호나에는 새로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실린 표준에 관해 더 많은 기사가 실릴 예정입니다.



선택의지에 관한 핵심 개념

“인생의 방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는 ……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은사입니다.
……

여러분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어떻게 행동할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2011), 2쪽.



모범으로 축복받다

친구들이 제 삶에 영향을 주었듯이, 여러분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친구들의 삶에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칠십인 정원희

최 근에 저는 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났던 시절, 복음대로 살 때 느끼는 기쁨, 친구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친구들의 모범 덕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미국령 사모아를 떠나 미국으로 처음 건너온 것은 열 살 때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당신보다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고모 내외와 함께 워싱턴 주 시애틀에 살았습니다. 열네 살 때는 캘리포니아 주로 이사했습니다. 같이 사시던 외할머니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 봉사자셨는데, 그때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른 학생과는 차별되는 몇몇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말투와 옷차림이 단정했으며, 걸모습은 위엄이 있고 어떤 빛을 발했는데, 그것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우리는 친해졌고, 친구들은 저를 상호 향상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재미있고 건전한 활동들이 좋았고 그곳에서 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친구는 제게 선교사와 물몬경을 소개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저는 침례 받았으며, 평생에 걸친 물몬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권고를 따랐습니다. 제 친구들처럼, 우리는 매일 복음대로 살면서 하는 행동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과 믿음을 반영하여 살아간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더 많이 알아보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몬경에 나오는 엘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마는 노아 왕의 왕궁에서

제사로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빈아다이가 간증을 전하자 엘마는 그를 믿었고 큰 위험을 무릅쓰고 아빈아다이의 말을 기록했으며 사람들에게 구주에 관해 가르쳤습니다.(모사이야서 17:2~4 참조)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 후에 몰몬의 장소에 엘마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수가 꽤 많았으니, 참으로 그의 말을 믿는 자들이 모두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을 가르치며, 회개와 구속과 주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전파하니라.”(모사이야서 18:7; 또한 1~6절 참조)

이후 아들 엘마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자 천사가 엘마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의 기도와, 또한 네 아비인 그 중 엘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는 그가 네게 관하여 곧 네가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많은 신앙으로 기도하였음이니라.”(모사이야서 27:14) 아들 엘마와 그의 친구들은 회개했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으며, 선한 모범을 통해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아들 엘마와 그의 친구들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고, 선한 모범을 통해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되어, 많은 자들을 진리의 지식에, 참으로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들이 얼마나 복 있느냐! 이는 그들이 평화를 공포하였으며, 선한 일의 좋은 소식을 공포하였으며, 주께서 다스리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음이니라.”(모사이야서 27:36~37)

제 친구들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반대가 좀 있었지만, 저 역시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그 이후의 제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모아 아피아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시절, 선교사들은 신권 지도자로서 상당히 많은 책임을 수행해야 했는데, 저는 사모아 교회를 강화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선교 사업과 교육을 마친 후에 사모아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 저와 내내는 사모아로 이주해서 자녀를 키우고 교회와 지역 사회를 강화하려 힘썼습니다. 비회원인 아버지는 지역 사업과 지역 사회 문제에 활발히 참여하셨습니다. 그분의 좌우명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제대로 하는 것이 가치 있다”였습니다. 자녀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온 힘을 다해 복음대로 살자, 아버지는 저희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을 인식하셨습니다. 1999년, 고든 비헝클리(1910~2008) 회장님은 피지 수바 성전 기공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아버지 댁에 머무셨습니다. 회장님이 그곳에 계시는 동안, 아버지는 영으로 감화되었습니다. 저는 80세가 된 아버지에게 침례를 베푸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복음에서 큰 기쁨을 찾으셨으며 여생 동안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의 중요성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다른 사람의 삶에 찾아오는 행복을 압니다. 친구들이 보인 선한 모범과 선지자의 사랑 덕에 제 가족과 저는 복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다음 성구가 참됨을 나눔으로써 그들도 이 성구를 통해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게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히라맨서 5:12) ■

가장 강력한 군대



나는 군대에서 장교가 되려 했다. 하지만 장래를 생각하자 “언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이니?”라는 어머니의 질문이 떠올랐다.

에이치 다니엘 월케 카날레스

어릴 때부터 줄곧 나는 군대에서 복무한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었다.

전쟁 영웅이자 조국에서 용맹함과 겸손함으로 위대한 모범이 되신 분들이 많았다. 그분들의 경험 때문에 나는 군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열세 살 때, 엄격한 군율과 보병 훈련으로 유명한 학교에 들어갔다. 일정은 매우 빡빡했다. 일과가 끝나면 녹초가 되어 버려서, 개인 경전 공부와 세미나리 참여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잦았다.

2학년 무렵에는 인생 계획이 섰다. 18세에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장교 학교에 입학해 4년 뒤 졸업하여 과테말라 육군 장교가 되리라는 계획이었다. 내 모든 소망과 꿈이 실현되는 듯했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께 나의 계획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어머니는 “언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이니?” 하고 물으셨다. 그날 이후 내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었지만 나는 영적인 훈련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세미나리에 가고 전임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형의 조언을 따라 몰몬경도 읽기 시작했다.

낙하산병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매일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거의 기다시피 해서 막사로 돌아왔지만, 나는 언제나 몰몬경을 읽을 힘을 냈다. 매일 경전을 읽는 것은 영을 강화하고 훈련을

계속 받게 하는 힘이 되었다.

어느 저녁, 친구 몇 명이 내 침대 둘레에 모여 몰몬경과 지혜의 말씀에 관해 몇 가지를 물어보았다. 그것은 내가 최고의 군인이 될 기회였다. 진리를 수호하고 몰몬경에 대한 확고하고도 확신에 찬 간증으로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군인 말이다.

열아홉 살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즉 모든 군대 중 가장 강력한 군대에 입대했다. 멕시코 푸에블라 선교부 대대에서 용감한 시온의 장로와 자매 선교사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며 용기와 힘을 내어 자유를 위해 싸웠다.

우리는 어둠의 군대에 맞서 싸우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계속 우리의 왕을 위해 입대한 용감한 군인이고 싶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몰몬경과 성신과 충만한 복음이 있다.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해의 영광에서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

우리들 공간



내가 좋아하는 성구

교리와 성약 64:10

제가 이 성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때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드릭 지, 16세, 필리핀 루손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 주십시오

청 소년의 힘을 위하여여 나오는 이 표준대로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음악과 춤
- 신체 및 정서적 건강
- 회개
- 안식일 준수

제목을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로 하여 자신의 경험을 liahona.lds.org 웹사이트에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이메일에는 성명, 생년월일, 와드 및 스테이크(지부 및 지방부), 여러분의 글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 발전 기도

아말리아 카밀라 윌트

평 생 부모님은 내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으나
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밤에만 개인 기도를 하게 되었다. 나는 청녀가 될 때까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받고서 나는 모든 목표를 훑어보았다. 나는 한 목표에 관심이 쏠렸다. 바로 신앙 가치관 경험이었는데 그것에 따르면 저녁은 물론 아침에도 기도해야 한다고 한다. ‘왜 아침에 기도해야 하지?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야.’

시간은 흘렀지만, 나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 목표를 성취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신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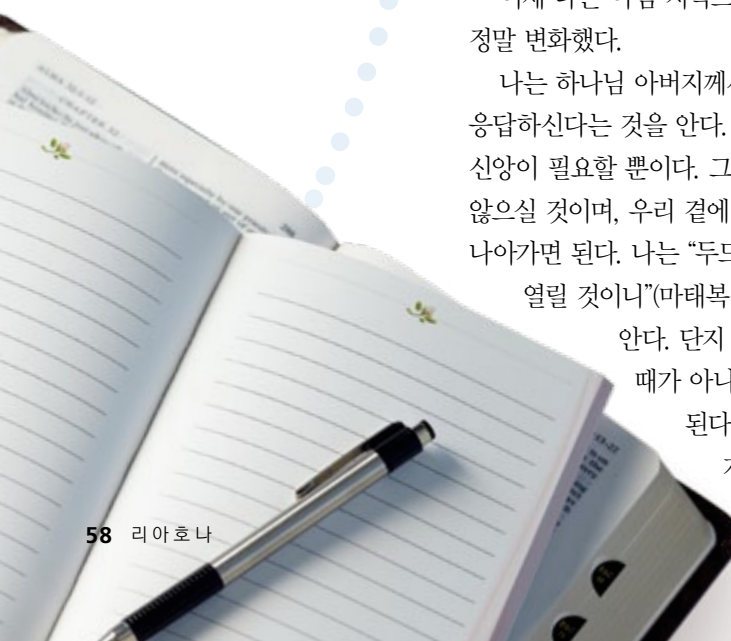
처음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내면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점차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확신을 느끼게 되었다. 가족과 사소한 일로 다투지도 않게 되었다. 교회에 가려고 일찍 일어날 때도 피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회에 가고 싶은 소망이 커졌다.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별 확신 없이 뭔가가 바뀌기를 기도했다. 나는 그 후에 일어난 일로 깜짝 놀랐다. 나는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마칠 수 있었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했다.

이제 나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 내 삶은 정말 변화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는 그저 그분을 믿는 신앙이 필요할 뿐이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 나아가면 된다. 나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라는 약속이 참됨을 안다. 단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 된다. 나는 개인 발전 프로그램과 기도라는 훌륭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래리 알 로렌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나[는]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니파이전서 1:1)



읽는 법

여섯 살 때, 저는 글자를 잘 못 읽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1학년을 다시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매일 밤, 저와 함께 읽기 연습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읽기를 놀이처럼 만들어서 제가 계속 흥미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머지않아서 저는 단어를 읽게 되었고, 아버지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함께 글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제 실력도 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2학년으로 올려 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제가 발전하는 것에 언제나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성탄절 때는 제가 좋아할 만한 책도 몇 권 사 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몇 달 뒤,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제가 대학과 의대 대학원을 졸업하는 것은 보지 못하셨지만 제가 책 읽기를

배우기

좋아하게 되는 것은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흠족해하셨습니다.

제 가족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의대생 시절, 저는 기이한 업적이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저자는 리그랜드 리차드라는 사도였습니다. 온통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한 내용뿐인 그 책을 저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책을 연구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몇 달 뒤 교회에 들어오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침례 받은 후에는 성전에 가서 아버지를 위해 침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릴 뭇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은 제가 매일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삶을 축복합니다. ■

선교사 친구

제인 맥브라이드 초아트
실화에 근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0:59)

앨릭스는 토요일에 같이 놀자며
친구인 제이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경주용 차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던 중 제이크는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니?” 제이크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앨릭스는 “몬슨 회장님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제이크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앨릭스는 “너도 알잖아. 우리 교회
선지자시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크는 “우린 이제 교회에
안 가.”라고 말했습니다.

“왜?” 앨릭스가 물었습니다.

제이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도
모르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앨릭스는 “나랑 일요일에
교회에 갈래? 초등학교에 같이 가자.
우리 선생님은 정말 좋으시거든.”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께



여쭙 볼게. 아마 가라고 하실 거야.”

점심 때 앨릭스는 엄마께 “내일 초등학교에 제이크랑 같이 가도 돼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제이크네 어머니께 먼저 여쭙 봐야겠지. 허락하시면 당연히 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제이크의 어머니가

제이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앨릭스는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내일 제이크랑 같이 초등학교에 가도 돼요?”

제이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앨릭스가 그러는데 초등학교가 정말 좋대요. 이야기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경전 속 인물들에 관해서도 배운대요.”

제이크의 어머니는 머뭇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잖니.”

그러자 제이크는 “제발요, 엄마. 저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앨릭스의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이크가 간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이죠.” 제이크의 엄마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가고 싶니?”

“그럼요!” 제이크가 대답했습니다.

제이크의 엄마는 “그럼 가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이크는 엄마를 와락 껴안고는 “고마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앨릭스의 가족은 제이크를 데리러 갔습니다. 제이크는 안식일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성찬식 모임 후에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선생님이 “제이크, 와 주어서 정말 기쁘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모임 후에도 앨릭스의 가족이 제이크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앨릭스의 엄마는 싱긋 웃으시며 “천만에, 제이크. 다음에 또 같이 가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앨릭스가 말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도 제이크에게 교회에 가자고 해도 돼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모범을 따라서 나도 제이크의 어머니에게 교회에 가자고 말해 볼 거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앨릭스, 너 정말 훌륭한 선교사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앨릭스는 깜짝 놀라며 “그냥 친구가 되어 줬을 뿐인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교사란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이들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일은 생활하면서 실천해야 할 일인 동시에 기쁨입니다.”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침심인 정원회, “그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06쪽.



우리들 이야기



니콜라스 엠, 5세, 콜롬비아



모로나이 대장, 에즈라 비, 9세, 필리핀



성찬식 발표를 준비하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미라도르 스테이크 라후에르타 와드 어린이들.



영원한 가족,
니콜레 엠, 5세,
브라질



창조, 멜라니 엠,
6세,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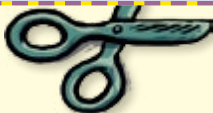


알론드라 이는 다섯 살이며, 과테말라에 삽니다. 알론드라는 초등학교를 아주 좋아하며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도 정말 좋아합니다. 알론드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알론드라는 리아호나에 실리는 어린이난 기사도 무척 좋아합니다.

연차 대회 최종 점검

아래에 있는 띠를 잘라서 끝에 풀칠을 한 뒤 고리 사슬을 만들어 연차 대회를 준비하세요. 연차 대회 2주 전부터 매일 고리를 하나씩 뜯어서 띠에 적힌 대로 해 보세요. 고리 사슬이 짧아질수록 연차 대회도 점점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1. 리하이의 리아호나에 관해 읽어 보세요.(니파이전서 16:10, 28, 29, 엘마서 37:38~40 참조)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 시대에 사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리아호나와 같은 역할을 할까요?
2. 선지자와 사도들의 사진을 리아호나 5월호, 11월호 혹은 lds.org/church/leaders에서 찾아보고 그분들의 이름을 익혀 보세요.
3. 초등학교에서 선지자에 관해 말씀하도록 부탁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할 건가요?
4. 찬송가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세요.(찬송가, 6장)
5. 연차 대회 동안 어떤 복음 주제에 관해 더 배우고 싶나요? 듣고 싶은 말씀 목록을 적어 보세요.
6. 연차 대회 동안 집중하고 성신을 느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말씀하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7. 연차 대회를 고대하는 이유를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말해 보세요.
8. 백성을 향해 설교하는 베냐민 왕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모사이야서 2:1, 5, 9, 41 참조) 그 모임은 연차 대회와 어떤 점이 비슷하나요?
9.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에 나오는 선지자를 그려 보세요.
10. 연차 대회 말씀에 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기록할 일지를 만들어 보세요. lds.org/general-conference/children에서 연차 대회 노트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11. “예언자 따라” 노래를 부르세요.(어린이 노래책, 58~59쪽)
12. 제4니파이 1장 12~13절, 16절에서 의로운 니파이인들에 관해 읽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함께 모일 때 무엇을 했나요?
13. lds.org/general-conference/children에서 “Prophets and Apostles(선지자와 사도들)”이라는 짝 찾기 놀이를 해 보세요.
14.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의 다음 가르침에 관해 이야기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께서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권고를 경청한다면, 여러분은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너희는 저의 말을 받아들이라”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81쪽)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십계명은 저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오 늘은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반 친구가 숙제를 하기 위해 제 것을 베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베끼는 건 안 되고, 그 대신 숙제를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방과 후 집에 오는 길, 정원에서 갓 뽑은 채소가 수북이 담긴 큰 광주리를 드느라 힘들어 하시는 이웃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한편론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 아주머니께 달려가서 광주리를 집 안까지 함께 들어다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아빠께서 수학

숙제를 하라고 이르셨습니다. 수학은 어려워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잘 시간이 되어 피곤했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이런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따르는 것임을 아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 주님의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선지자 모세를 통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열 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며,

노래와 성구

- “계명을 지키라”, *어린이 노래책*, 68~69쪽.
- 고리와 성약 42:29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좋은 이웃이 되도록 가르칩니다. 이러한 계명은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변 사람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

바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열 개를 모두 찾을 수 있나요? 원한다면 경전용 색연필로 표시해 두세요.



CTR 활동: 계명대로 살기

십계명은 (1) 하나님을 경외함 (2) 부모와 가족을 존중함 (3) 다른 사람을 존중함, 이렇게 중요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세 문구를 잘라 내세요. 이 문구를 병 또는 가방에 붙이거나 탁자 위에 놓아 둡니다. 가족들에게 계명을 따르기 위해 지난 주에 자신이 했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 착한 일 몇 가지를 쪽지 여러 개에 나눠서 적어 보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경건하게 기도했거나 남동생이 저녁을 차리는 부모님을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 쪽지를 펴서 거기에 적힌 것을 읽고 가족과 함께 그 경험이 세 부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결정해 봅니다. 해당하는 병이나 가방에 쪽지를 넣거나 탁자 위에 둔 문구 옆에 놓습니다. 나머지 쪽지를 읽고 올바르게 분류하여 넣습니다. 어떤 경험은 두 가지 이상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부모와 가족을 존중함

다른 사람을 존중함

채드 이 패러스
교회 잡지

학교에서 저는 친구 세 명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길래 저도
믿는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친구들을
성전 일반 공개에도
초대했어요.
친구들이 “좋아,
갈게.”
라고
말했어요.



안녕! 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사는 티모페이야

여섯 살인 티모페이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자 우크라이나의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진 키예프에 삽니다.
그 새로운 성전과 그 외 여러 가지
것들로 티모페이는 무척 행복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이가 두 개 빠졌을 때
기뻐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외할머니
덱에서 뽑아 주셨고,
다른 하나는 저절로
빠졌습니다.



아빠와 형들이 가라테를 배우기에 저도 올해부터
가라테 수업에 들어갔어요. 강한 주먹을
날리는 방법이란 호신술,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법을 배웠어요.



사진 촬영: 채드 이 패러스



형과 저는 블록으로
집과 차, 조그만
사람을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형들은 성전 일반 공개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저도 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려서 안 됐죠.
저는 일반 공개 때 성전을 두 번
돌러봤답니다. 정말 좋았어요.



여름에 제 두 형들이 축구를 가르쳐
주었어요. 경기장에서 뛰는 법과 공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저는 형과 형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합니다.

저는 제 조그만 자동차들을 좋아해요.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부서지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오랫동안 갖고
놀았는데 흠집이 거의 없어요.

저는 밤에 장난감을 곁에 두고 자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형들이 잠들어도
저는 계속 장난감을 갖고 조금 더
놀아요.



니파이인들을 방문하신 예수님

다이앤 엘 맥검

3 일간 짙은 어둠이 니파이인들의 땅을 덮었습니다. 희미한 햇빛도 별빛의 반짝임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촛불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겉에 질린 니파이인들은 천둥과 무서운 폭풍 소리를 들었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진작 선지자 니파이의 가르침을 따르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온 땅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예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지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나 이제는 부활하시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척 놀란 니파이인들은 여러 시간 동안 말없이 앉아서 자신들이 들은 말씀을 꼼꼼이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시 세상이 밝아졌고 사람들은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풍요 땅에 있는 성전 주위에 모여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성에 마음이 뜨거워졌으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예수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이 그들을 모으려 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사랑하며, 그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려 하셨다는 뜻입니다.

못했습니다.

음성이 다시 들렸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음성이 세 번째로 들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람들은 위를 올려다보았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그들



가운데 서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니파이인들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오시리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모든 사람에게 만져 보게 하셨습니다. 모두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 보며 그분이 부활하신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니파이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다시 하늘로 가신 후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 권세를 니파이와 열한 명의



니파이

물문경에는 니파이라 불리는 선지자가 네 명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제자인 니파이는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보다 600년 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남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열두 명은 미대륙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

제3니파이 8~12장에서.

초등회에 있는 것처럼

트린 팩스톤
실화에 근거

2. 소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 일요일 아침, 소피는 식사를 하려고 앉았지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지, 소피.
오늘은 너무 많이 아파서
교회에 못 가겠구나.

그래도 초등회에
가고 싶은걸요.

대신 집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 볼 수 있을 거야.

3. 소피는 마음이 슬퍼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썼습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초등회에
있는 것처럼 해 보는 거야.

4. 오빠들이 교회에 갈 준비를 하자 소피도 안식일
복장을 입었습니다. 또 인형과 봉제 인형에도
예쁜 옷을 입혀서 소피의 초등회에 참석하게 해
주었습니다.

5. 가족들이 교회에 간 후, 소피와 엄마는 거실을 초등학교 교실처럼 꾸몄습니다. 소피는 예수님 그림들을 벽에 붙이고 책장에서 어린이 노래책을 꺼냈습니다. 크레용과 경전도 꺼내 왔습니다.



6. 소피는 인형과 봉제 인형들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개회 기도는 엄마가 하셨습니다. 그런 후 소피와 엄마는 함께 “난 하나님의 자녀”와 “나 성전 보고 싶어”를 불렀습니다.

7. 초등학교 놀이를 하며 소피는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인형과 봉제 인형들도 조용히 앉은 채로 소피의 초등학교 모임에 함께했습니다.



8. 소피의 초등학교 모임이 끝나자 엄마는 소피가 낮잠을 자도록 침대에 누워 주셨습니다.



무엇이 같을까요?

소 피가 너무 아파서 초등학교에 가지 못하자 소피와 엄마는 거실을 초등학교 교실처럼 꾸몄습니다. 두 그림에서 같은 것을 찾아보세요.





삽화: 발 채드윅 배글리

발 채드윅 배글리

이 장로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봉사한 후 귀환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숨겨진 물건들을 찾아보세요. 여기에는 야구공, 책, 사발, 나비, 자동차, 크레용, 컵, 닭다리,

봉투, 포크, 골프채, 망치, 연, 칼, 사다리, 붓, 연필, 종이, 자, 드라이버, 양말 두 짝, 숟가락, 천막, 칫솔, 우산, 수박 한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상호부조회 170주년을 기념하는 전 세계 상호부조회 자매들

록 이 찬
교회 소식 및 행사

상 호부조회 창립 170주년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 자매들은 상호부조회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봉사와 다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올 2월, 전 세계 자매들에게 상호부조회 창립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제안하며 2012년 3월 17일 토요일에 실행하도록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런 활동은 지역 신권 지도자의 지시 아래 계획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계 자매들이 그 요청에 응하였다. 세계 도처에서 치러진 축하 행사를 다음과 같이 짧게 전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라 베가 지방부 프리마베라 제1지부 자매들은 3월 17일 행사에서 초창기 후기 성도 자매들의 이타심과 그들이 남긴 영원한 유산을 기억하는 모임을 했다.

참여한 자매들은 개척자 복장을 차려 입고 상호부조회와 관련된 메시지를 나누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마리아 엘레나 피카르도 데 고메스 자매는 현대 선지자들이

가르친 대로 고난의 시기를 대비해야 하는 자매의 책임을 일깨워주었다.

고메스 자매는 “프리마베라 제1지부 상호부조회의 진정한 힘은 서로 얼마나 다른가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복음 속에서 어떻게 단합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피지

“지역 사회에서 상호부조회 봉사를 실천”하라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권고에 따라 피지 수바 북 스테이크 사마블라 와드 상호부조회는 “변화를 일으킴—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구호 아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와드 자매들은 각자 2012년 9월 말까지 170번씩—각기 다른 사람들에게—봉사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자매들이 에머 스미스 이래 지금까지의 모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생애와 헌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도 했다.

홍콩

홍콩 뉴 테리토리 스테이크 자매들은 자신의 역사와 상호부조회 역사를 돌아보며 상호부조회 창립일을 기념했다.

자매들은 “은총을 추구하여”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계획했고, 옛 선교사 사진과 가족 기록, 그림, 이전 상호부조회 활동에서 만든 수공예품인 등, 빨간 종이 주머니로 만든 공작새, 자수, 열쇠 꾸러미, 지갑 등을 전시했다.

케냐

케냐 나이로비 선교부 밤부리 지부에서는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활동에 사용하려던 돈을 기부해서 지부에 필요한 부엌 세간 및 다른 용품을 구매했다. 집회소를 깨끗이 청소한 후에 와드 자매들은 모여 앉아서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에 나오는 내용을 토론하며 1842년에 있었던 상호부조회의 창립을 기리는 시간을 보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인 아이린 키오이는 “범세계적인 조직인 상호부조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때면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상호부조회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기 때문이지요.”라고 말했다.

몸바사 지부는 *내 왕국에 속한 딸들*과 신약전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들에 관해 공부했다. 지부 상호부조회장인 야엘 트람베레는 “본 모임은 몸바사 지부 상호부조회에서 열린 첫 번째 기념 행사입니다. 모두가 상호부조회의 의무에 헌신하겠다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바랍니다. 서로 돌보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을 오늘부터 새롭게



피지 수바 북 스테이크 사마블라 와드 상호부조회는 에머 스미스 이래 지금까지의 모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생애와 헌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했다.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셜제도 공화국

3월 17일 토요일 새벽 4시 30분, 마주로 환초 근처 도시인 라이룩에는 마셜제도 스테이크 롱아일랜드 마주로 와드, 라우라 와드, 아젤테이크 지부에서 온 수백 명의 자매들이 함께 모였다. 그 이유는 인내의 미덕을 보이기 위해 한 시간 반 동안 데랍 집회소까지 걸기 위해서였다. 이 자매들은 데랍 집회소에서 데랍 와드와 리타 와드 자매들을 만났는데, 그들 역시 아침 식사를 겸한 모임을 위해 집회소까지 걸어온 터였다. 후에 자매들은 촌극과 무용 공연을 했고, 스테이크 회장의 말씀을 들었다.

스페인

스페인 세비야 스테이크 도스 에르마나스 와드에서는 자매들이 오랫동안 함께 했던 봉사 활동을 담은 사진첩을 포함해서 와드 상호부조회 역사에 관한 전시회를 열었다.

상호부조회 제1보좌인 마리아 페레스 산체스는 “이 조직의 창립 기념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개척자 자매님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분들이 했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스테이크 가드너 와드 자매들은 3월 15일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상호부조회 창립

170주년을 기념했다. 그날 저녁에는 네 명의 자매가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자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각 연사는 몇 가지 전시물을 가져와 발표 내용을 더욱 부각시켰다.

상호부조회장인 제니퍼 위트콤은 “이러한 활동은 자매들의 힘과 가치를 드높이며, 서로가 지닌 힘과 공통분모와 가치를 바라보도록 고무시킵니다.”라고 말했다.

비록 기념일은 지났지만, 자매들은 2012년 한 해 내내 꾸준히 봉사에 참여하고 다른 기념 활동을 하도록 권유받을 것이다. ■

브라질 아마파의 새로운 스테이크,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으로 선교 사업의 길을 열다

미셸 사(파비아노 카발헤이로 장로의 도움을 받아)

20 12년 3월 10일 토요일에는 21명이 침례를 받았다. 최근 몇 년간 브라질 벨렘 선교부 지역인 파라 주와 아마파 주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이 같은 날 침례를 받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에베소서 2:19)이 되고 “새 생명 가운데서”(로마서 6:4) 걷게 된 적은 없었다.

침례식은 4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마카파 지방부에 스테이크로 조직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는 직후에 있었다.

지도자와 회원 및 선교사들은

이러한 성장을 위해 힘을 모아 일했다. 또한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은 최근 선교 사업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브라질 벨렘 선교부 회장인 호세 클라우디오 후르타도 캄포스는 “지난 2년간 아마파 주에서 펼쳐진 도움의 손길 프로젝트는 교회를 희미한 데서 이끌어내었으며, 정부 관료들과 언론, 일반 시민 사회를 일깨워 이 놀라운 프로그램과 그것을 진척시킨 교회에 관해 더 알고 싶은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도움의 손길 프로젝트가

주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주 정부 관료들은 4월 6일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날로, 7월 30일은 도움의 손길 연대 행동의 날, 9월 23일은 ‘가족 선언문’의 날로, 3일을 그 지역의 새로운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덧붙여, 지역 칠십인으로서 브라질 지역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는 아이로 마짜가르디 장로에게 교회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움의 손길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는 아마파 주민 사이에서 더욱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캄포스 회장은 이렇게 말을 이었다. “선교사들이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면, …… 사람들은 이미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자료 등을 통해 교회에 대해 이미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선교 사업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브라질 마카파 스테이크 공보 위원 미셸 사, 브라질 벨렘 선교부 전임 선교사 파비아노 카발헤이로 장로 ■

2012년 3월 10일 토요일, 브라질 마카파에서는 21명이 침례를 받았다. 브라질 마카파 지방부가 스테이크로 승격되기 약 한 달 전이었다. 새로운 회원들이 브라질 벨렘 선교부 선교사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꺾말에는 에스타카(스테이크에 해당하는 포르투갈어) 마카파 또는 마카파 스테이크라고 쓰여 있다. 지역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이 지역에서 이룬 교회의 성장과 힘은 도움의 손길 프로그램에서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사진 촬영: 미셸 사

교회 지도자들이 하와이, 아이다호, 유타에서 거행된 졸업식에서 말씀하다

교회 지도자들이 4월 한 달 동안 하와이, 아이다호와 유타의 교회 대학을 순방하며 졸업생들에게 유익할 만한 말씀을 전했다.

2012년 4월 7일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 캠퍼스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신앙으로 대처하라'고 권고했다.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성장과 변형, 풍요의 시기 출발점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구주의 재림을 내다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데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헌납할 것을 촉구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2012년 4월 13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LDS 비즈니스 칼리지에서 미국 50개 주와 세계 67개국 출신 졸업생들을 위해 졸업식 축사를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일생을 두고 봉사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봉사는 세상에 점점 더 만연하는 이기심과 특권 의식에 대항할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봉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다음날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은 브리검 영 대학교-하와이 캠퍼스에서 졸업생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역경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승자가 항상 선착하는 것은 아닙니다."와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

"신앙과 생명의 마라톤에 뛰어드시십시오. 언덕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말고 역경 속에서도 기회를 찾으십시오. 확신에 찬 발걸음과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굳건한 지식으로 나아가십시오. …… 저는 영의 인도를 받는 고결한 젊은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12년 4월 19일에 유타 주 프로보의 브리검 영 대학교 졸업생들은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십이사도 정원회 델린 에이치



2012년 4월 19일, 미국 유타 주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이 십이사도 정원회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의 말씀을 듣고 있다.

옥스 장로의 말씀을 들었다.

"비록 사람들은 낙담할지라도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시련의 시기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는 위협적인 도전 속에서 살아남았으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우리에게는 구주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십니다."

이 기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교회 지도자들이 전한 다른 말씀을 보려면, prophets.lds.org에 접속해서 현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부분을 찾아본다. ■

교회를 찾는 회원들을 위해 더 새로워진 후기 성도 지도

회원들이 스테이크 소속 회원들이나 집회소, 성전, 교회의 다른 시설물을 더욱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후기 성도 지도 개정판이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운 후기 성도 지도에 접속하려면 LDS.org에 접속해서 Tools 메뉴에 들어가 Maps를 클릭한다. 이 지도는 한국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등 16개 국어로 이용 가능하다.

새 지도에는 세대 확인, 다양한 지도 보기 옵션, 더 나아진 아이패드와 태블릿 기기 지원 기능, 단위 조직 경계 지도, 나의 위치 찾기 기능과 향상된 출력 기능 등을 새롭게

갖추었다.

새로운 버전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후기 성도 집회소와 차량을 이용한 길 찾기 정보를 보고 인쇄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도를 공유할 수도 있다. 또한 후기 성도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회원들은 주변 지역의 와드와 스테이크 정보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연차 대회 관련 사진을 교회 잡지에 보내주세요

교회 잡지 리아호나와 Ensign은 연차 대회 직후에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연차 대회와 관련된 사진을 보냄으로써 다가올 연차 대회와 앞으로 계속될 연차 대회에 참여하도록 회원들에게 요청한다. 제출한 사진은 5월호나 11월호 잡지에 실릴 수 있다.

회원들은 LDS.org에 접속하여 한국어를

선택하고 메뉴의 학습에서 리아호나로 이동한 후(또는 주소창에 lds.org/liahona?lang=kor을 입력), 잡지면 왼쪽 상단의 자료 제출을 클릭하여 사진을 빠르고 쉽게 제출할 수 있다.

리아호나와 Ensign 페이지에 있는 '자료 제출'란에서도 온라인 양식으로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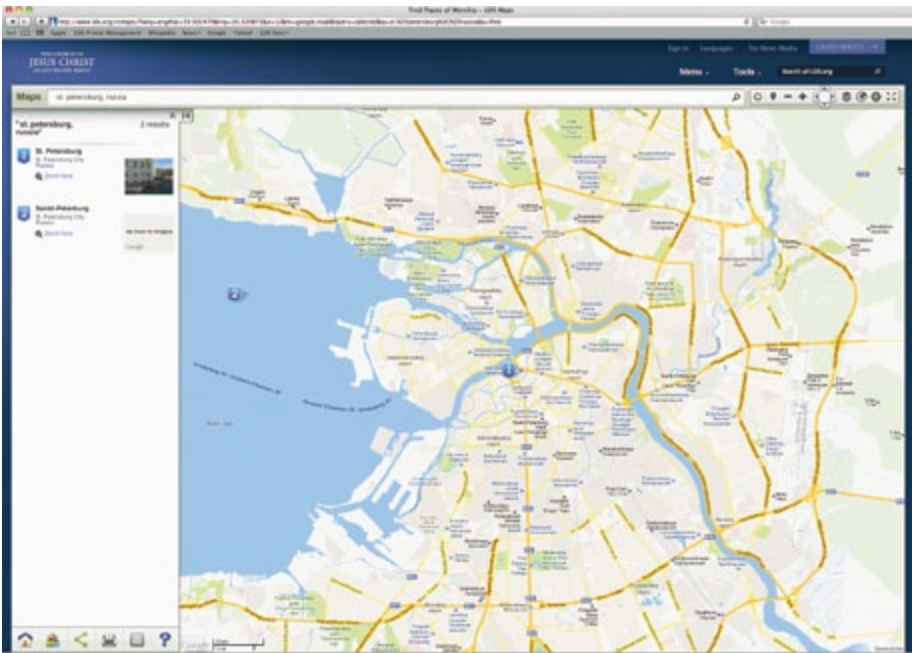
회원들은 이미지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지 관련 지침을 살펴봐야 한다. "연차 대회 사진" 아래쪽에 있는 관련 지침에는 잡지 편집인이 바라는 사진 형식, 품질,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회 사진 제출 마감시한이 나와 있다.

태블릿 기기를 위한 리아호나 앱 출시

교회는 태블릿 기기에서 교회 잡지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앱을 제작했다. 후기 성도 리아호나 앱은 물론경을 다룬 2011년 10월호와 최근 두 연차 대회 내용을 담은 2011년 11월호와 2012년 5월호가 실려 있다.

후기 성도 리아호나 앱은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로 사용 가능하며,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즉 더 현장감있게 잡지를 접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들은 똑같은 내용을 오디오 파일로 들으며 읽을 수 있다. 안드로이드와 애플 기기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세대 확인, 다양한 지도 보기 옵션, 더 나아진 아이패드와 태블릿 기기 지원 기능, 단위 조직 경계 지도, 나의 위치 찾기 기능과 향상된 출력 기능을 갖춘 새로운 후기 성도 지도가 출시되었다.



작고 단순한 일

내 아들 테일러(벌포드 장로)는 타히티 보라보라 섬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아들은 얼마 전에 스테이크 회장이 이발하기 위해 보라보라 섬에서 회원이 운영하는 이발소에 갔던 경험을 들어 선교사들에게 말씀한 내용을 내게 보내 주었다.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인 이발사에게 고객들이 읽도록 비치해 놓은 잡지 중에 왜 *리아호나*가 없느냐며 물었다. 이발사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다음에 방문할 때는 *리아호나*를 비치해 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 번 스테이크 회장이 이발소에 들렀을 때도 *리아호나*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실망한 스테이크 회장은 이발사에게 왜 아직도 *리아호나*가 없는지 물었다. 이발사는 매번 *리아호나*를 갖다놓으면 어떤 사람이 읽다가 여러 질문을 하고는 *리아호나*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본다고 설명했다. 이발사는 더는 나눠줄 *리아호나*가 없다고 말하면서 *리아호나*를 가져간 많은 사람이 선교사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교회 회원인 의사와 치과 의사, 또 이발사 모두가 대기실에 교회 잡지 몇 권을 비치해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는가? 교회는 회원들이 하는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 전진해 나갈 것이다.

버넬 벌포드, 미국 유타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제출하신 내용은 명확한 표현과 분량 조절을 위해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법”,

12쪽: 기사 끝에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행동과 권세의 원리로서 신앙에 대해 말씀했다. 가족으로서 여러분이 직면한 몇 가지 어려움과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 세울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만 있으면 주님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번 주에 추진할 한 가지 목표를 선택한다. 다음 가정의 밤에서 목표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가족과 토의할 수도 있다.

“모범으로 복음 나누기”, 16쪽: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눌 만한 친구나 다른 가족이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권유한다.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되고, 사랑을 품고 경청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여 간증을 나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도록 한다.

“개인 발전 기도”,

58쪽: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한 아말리아의 경험담을 읽는다. 엠울레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친 앨마서 34장 17~27절을 읽는 것을 고려해본다. 이 성구가 언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해 어떤 점을 통찰하게 하는지를 가족에게 물을 수 있다. 기도의 힘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며 결론을 맺는다.

“선교사 친구”, 60쪽: 기사를 읽고 난 후, 가족 모두가 친구들이 관심을 둘 만한, 교회 활동과 모임의 목록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본다. 어쩌면 친구를 활동에 초대하기 위해 역할극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다. 특히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토론한다. 친구를 만나 권유할 계획을 세우고 마친다. ■

우리는 행복한 가족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좋은 가정의 밤은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했던 것이었다. 경영진이 바뀌면서 남편은 직장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의기소침해 있었다.

우리는 그 주 가정의 밤을 남편을 위해 하기로 했다. 모든 가족이 남편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서 왜 그를 사랑하는지, 또 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다. 그 후에 가족의 기념일, 결혼, 인봉, 출생과 다른 중요한 행사를 촬영한 사진첩을 만들었다. 각자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죠.”라고 끝나는 짧은 말을 적었다. 가정의 밤을 마치면서 딸과 나는 비슷한 구절이 담긴 초등학교 노래를 불렀다. (“행복한 가족”, *어린이 노래책*, 104쪽 참조)

가정의 밤 동안 우리는 구주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가정의 밤을 하라는 영감 어린 계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강화되고 영원한 가족을 준비하게 된다. ■

케니아 두아르테 도스 산투스, 브라질



내 가치는 얼마일까?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구매자는 물건이
그 값어치를
하는지 판단한다.

4년간 텔레비전 없이 지내고 다시 6년간 중고 텔레비전으로 버티다가 아내와 나는 마침내 새 텔레비전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가격이 걱정되었기에 우리는 모델과 상표, 기능, 가격 등을 세세히 비교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흥미롭게도 나는 텔레비전을 사 오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점을 통찰하게 되었다.

우리는 형제자매, 반 친구, 또래 친구, 동료들과 비교되면서 자신의 가치가 매겨지는 경험을 한다. 텔레비전을 살 때 상품을 비교하면서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생에서 우리 인간도 바로 텔레비전과 같은 신세가 될 때가 있다.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텔레비전이 가게에 진열된 다른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기도 27인치가 아니라 40인치짜리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으며]”(마태복음 6:27) 자신의 화면 크기를 1인치라도 키울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고린도후서 10:12)

또한, 우리는 우리를 저울질하며 자기가 보기에 우리가 얼마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말하는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가게 주인은 텔레비전 가격을 정하긴 하지만 텔레비전의 가치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이것이다. 가격을 보고 제품을 평가하며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고객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중대한 구매자는 단 한 명뿐이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품’인 우리를 총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평가하셨다. 그분은 인간과 관련된 악의 깊이를 아셨다.¹ 그분은 자신에게 요구될, 끔찍하고도 엄청난 대가를 이해하셨다.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그분]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였다.]”(교리와 성약 19:18)

그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분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 얼마나 부족하다고 여기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가치 없이 여기든 간에, 예수님은 그분이 치러야 했던 대가만큼 나를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하는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매우 미묘하고도 악랄한 방법 중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뿐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음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속삭이는 대적의 말을 믿게 된다면, 나는 그 의심 때문에 구주의 속죄하는 은혜를 구하는 대신, 그리고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는 대신 그 길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한다면 구매자인 구주께 가서 중요하고도 유일한 제품 후기를 알아보라.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구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 그분은 우리를 …… 그토록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 값을 치르셨습니다.”²

그 사랑을 믿을 때 구속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그분이 구입하신 것을 본향으로 데려가실 수 있다. ■

주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06쪽 참조.
- 헨리 비 아이어링, “자녀와 제자”,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31쪽.



예수 그리스도



병든 니파이인들



불에 둘러싸인 어린이들

병든 자를 고치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제3니파이 17장

올해 리아호나에는 몰몬경 경전 인물들이 실리게 됩니다. 각 인물을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나 작은 종이 봉투 또는 작은 막대기에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장 인물 이야기가 나오는 경전 구절이 적힌 라벨과 함께 각 경전 인물 세트를 봉투나 가방에 넣어 보관해 두세요.



복지 및 인도주의 프로젝트, 취업 센터, 선교 본부, 가족 역사 센터, 성전, 방문자 센터, 기타 여러 곳에서는 연로한 선교사들에게 봉사 기회를 제공한다. 연로한 이들은 그들의 부름이 주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주님은 기꺼이 봉사하려는 각 선교사에게 적합한 기회를 아신다. 20쪽의 “연로한 선교사들: 선지자의 부름에 응하다”를 참조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